

第258回國會  
(臨時會)

#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2月8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회

## 審査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회 ..... 1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회

○위원장 이경재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온 인사청문회로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공직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을 초월해서 공정하게 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며, 그다음에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고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절차는 후보자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일어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수 후보자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6년 2월 8일

공직후보자 이상수

○위원장 이경재 이상수 후보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존경하는 이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제가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된 것과 관련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과 추진력, 그리고 균형감을 고려한 인사라고 주장해도 과거의 저의 아픈 상처가 이를 믿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감옥에서 그리고 먼 이국땅 미국에서 고독과 아픔을 감내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자 기다림인가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 마셔야 할 독 배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반성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저의 희생이 우리 정치와 선거문화를 개혁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용 속에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온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마지막 봉사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다시금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의 파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라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성장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 속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을 함께 안고 가야 할 공동체적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노동행정의 중요 과제도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적용해야 할 변화라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극복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 어려운 노동환경 속에서 노사는 서로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노사가 이와 입술 관계에 있다는 생각,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섭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서로가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이 같아져야 하고 그 입장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를 갖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 나가는 인내와 관용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난항 속에 빠져 있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의 틀로 국민통합 연석회의, 중앙노사정위원회, 지역 또는 업종 노사정협의회, 사업장노사협의회 등을 중층적 협의기구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의제도 다양화하여 일자리 창출, 산업공동화 문제, 작업장 혁신 등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윈윈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고용 지원 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역 단위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적 협의기구로서의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효율성에 대한 조급함을 극복하고 더디더라도 함께 상생하는 큰 협의의 틀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경제활력의 회복도 사회적 양극화 해소도 노사 간의 균형과 협력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유연성 요구나 고용안정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가 상충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동시에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노동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른바 유연 안정성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나가는 한편 고용 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체계를 확장하여 고용의 안정성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도 노사 쌍방의 양보를 통해 균형잡힌 법안을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기관, 중앙고용정보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지역노사, NGO, 학계 등이 함께 참석하는 지역협의체로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통일적으로 고용 지원과 능력 개발에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우선 비정규직, 불법파견, 여성,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을 충실하게 보장하여 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거나 지원을 소홀히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 한편으로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의 수혜율을 높이고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등 각종 보험 혜택과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은 노사 갈등을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국민 경제의 발전과 노사 상생의 협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하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많이 억압받고 있을 때 저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노동자를 위한 변론에 앞장섰고 대우조선소 노동자를 돕다가 구속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12년 동안의 의정생활 중 절반인 6년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일하며 노동관계법 개선 등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제가 친노동자적인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저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환경도 바뀌었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많이 신장되었으며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변화한 노동환경 속에서 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균형감을 갖고 노동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노동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도 현장에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를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발로 뛰고 노사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가치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고민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노동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의를 모두 마친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정한 대로 위원 1인당 주질의 7분, 보충질의 8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정된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질의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감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심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수 후보자께서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신 후에 심려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정자와 이렇게 뿔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노동 현장에서 인권변호사로 소임을 다하셨고 국회의원으로로서도 노동위원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이상수 후보자는 겸예한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조정과 통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으로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알다시피 현재까지 노동계와 정부와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대화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선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장복심 위원** 참여정부의 3대 국정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정지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수립한 12대 국정과제 중에서 노동부와 관련이 있는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대충 알고 있습

니다.

**○장복심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여섯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노동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노동행정을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야 되는데 시간이 10분인지 알았는데 7분으로 또 줄어서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을 한번 짚고 그다음에 정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관련해서요.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쭙 보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벤처기업 주식 분쟁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논란을 일으켰다, 한 가지 하고요. 2003년도 SK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화해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지 일정 정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벤처기업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별로 변호를 맡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3건 정도, 그것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지구당에서 주민들이 요청할 때 맡은 일이 있는데 그때 원내총무를 할 때인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자기 동서가 지금 아주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가서 조사에 응하고 싶은데 검찰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속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하여튼 조사만 제대로 받게 해 줄 수가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에 들어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보여서 그러면 내가 너의 부탁이기도 하니까 사건을 맡겠다고 하고 바로 해당 수사 검사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사건을 맡았다고 하면서 본인이 이리이러한 정황을 얘기하는데 조사를 제대로 해 주시고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좀 구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조사해 주시고 조사한 다음에 구속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수사검사가 “나오라고 하십시오. 우선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사를 받도록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끝내 검사가 구속을 시키려고 영장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되니까 다시 또 조사해서 영장신청을 해서 끝내 법원이 기각을 해 가지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고,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검사가 진정한하고 유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검사께서 사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SK 사건도 얘기할까요?

○장복심 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됐을 때, 우리 참여정부가 수립된 직후인데 일반적으로 기업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선 다음에 반기업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또 한 가지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그렇게 수사를 확대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려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 내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이 바로 집권한 다음이기 때문에, 검찰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에서라도 그런 사정을 알리자라고 해서 그 당시 법사위원이고, 또 사무총장이고, 그 당시 검찰총장하고도 제가 선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이상수 총장이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화로 “수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가경제를 고려해서 일단 각 회사들이 자구책을 세워서 우선 문제를 푼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수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서영제 검사장이, 검사장이 된 다음에 그분도 “국가경제를 생각하면서 수사는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되었고, 그 후에 수사가 약간 조심스럽게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주 잘 되어서 흑자를 내는 큰 회사로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 당시 노동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집권 전반기 노동정책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노사정 간에 대화하고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65%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고요. 심각한 노사정 간 대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한 50%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고요. 내정자께 기대를 거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 중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절된 노사정 대화체계 구축으로, 내정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노사정 간 대화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시간 제한이 있는데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경재 짧게 좀 해 주세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또 여러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 노사정 협의 틀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노사 양쪽을 방문드리고 다시금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정두언입니다.

저희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당초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이 인사는 잘못된 인사라기보다는 있을 수 없는 인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해서 국회에 들어온 마당에 차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한나라당 위원뿐만 아니라 여론과 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알려 드리지요.

SBS가 지난 1월 4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가지고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상수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수신문에서 국내 교수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도 이번에 인선된 장관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장관이 이상수 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실련도 이상수 후보자에 대해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째 뒤흔든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저희 환노위 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장관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상수 후보자의 인사를 정치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인사검증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척 사유지요.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자, 준법성에 문제 있는 자, 도덕성에 문제 있는 자,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은 자, 이렇게 네 가지 제척 사유를 둡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하나도…… 이상수 후보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준법성·도덕성은 일단 당연한 것이지요.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준법·도덕성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여론도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제척 사유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 네 가지 제척 사유 중의 한 가지, 그중에서도 준법성·도덕성을 보면 과태료·벌금만 먹어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써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권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이 인사 매뉴얼상 제척 사유에 적용되고 후보자 같은 분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인사에 대해 다시 또 언론을 죽살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번 인사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네 가지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중잣대 인사’라는 말이 있고요. ‘조폭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탁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은 인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이중잣대 인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왜 정치인 출신 후보자 같은 분한테는 이렇게 허술하게 적용하는가? 이중잣대 인사지요.

자, 조폭 인사입니다. 대신 감옥 갔다 왔으니 내가 보상해 주겠다, 이것은 조폭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상 너무나 안 좋은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의 지금 시청 불가로 해야 되는 청문회입니다.

다음에 세탁 인사입니다.

자, 보십시오.

8월 15일에 광복절 사면복권됩니다. 그다음에 10월 26일에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낙선하니 장관으로 내정합니다.

이것은 군사독재 시대 때도 없었던 일이고요. 법치주의하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정권이지요.

아까 이상수 후보자께서 인사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성의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성의 나날을 보낸 것이 사면복권되자마자 바로 출마하고, 또 떨어지고, 또 장관을 수락하는 것입니까?

후보자께서는 반성의 나날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 줄게요.

지난 5월 15일 석가탄신일 사면복권 대상에서 정치인을 배제시키는 방침이 정해지자 후보자께서는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합니다.

2005년 1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2주년과 3·1절을 잇는 시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005년 5월 4일 매경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정두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으로 봐서는 반성의 나날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폭 인사, 이것으로 장관을 시켜 준다 해도 사양을 해야 될 분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보궐선거에도 나오고 이번에 장관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 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한 날짜가 작년도 7월 7일입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정두언 위원 이것 보세요.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 인사말씀에서 노사 협의를 얘기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조급합니까?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이 8월 8일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7월 7일에 갑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공천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조급하지 않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할 말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당으로서는 재선거가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당수 당의 중진들이 저에게 부천에서 출마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을 위해서 제가 한번 총대를 메는 심정으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용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이 서둘렀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한테 이러저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조폭 인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조폭 인사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을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청문회를 하면서 정말 적절치 않은 발언,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정두언 위원께서 대통령을 조폭으로 몰고, 그 인사를 조폭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너무 적절치 않아요.

○위원장 이경재 잠깐만요.

○배일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지금 이곳이 청문회 자리인데요, 특정 위원이 발언한 발언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의 본래 취지와 적절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일반 대중들이 보고 있고, 대통령이 조폭이다, 아니다의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사 관행이 조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언론이 표현한 용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의사를 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여부가 과연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에 맞는지를 봐서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우원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정두언 위원이 '조폭인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언론들이 이런 식의 인사라면 조폭인사와 같다는 식의 얘기이지 대통령이 조폭이다 그런 식으로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청문회는 당사자에 대한 문제지만 인사의 원칙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가 않지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

각합니다. 국회라는 곳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쓰여지는 용어는 본인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말인데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이 하는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 쓰여졌다고 해서 조폭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나치다, 국민들이 인정한 국회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조폭이니 이런 식의 지나친 발언은 국회에서 쓰기에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김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정두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국무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장관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질과 역량, 전문성 이런 것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데 자칫 최근에 또 오늘부터도 처음부터 이렇게 실제로 노동부장관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 검증, 전문성 검증보다는 그동안의 배경을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장관 내정자나 후보자 본인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나마도 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후보자 검증인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모범이 되도록 정책적 견지에서 심도 깊은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정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정책을 그러니까 직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과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만 짧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지금 특히 이 시기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균형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쌍방에 대해서 균형감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성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객관적인 현실 특히 국가이익이나 국가경제를

생각하면서 전체 국민 동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균형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3대, 16대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친노동자적 성격이 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균형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지 말씀해 보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 당시는 전체 노동환경이 상당히 노동자한테 열악했습니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많이 희생하는 측면을 보이면서 국가경제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동자를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환경과 관계되어서 그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정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왔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관계가 바로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노정 관계인데요, 노정 관계 파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장관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와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협약의 틀이 만들어져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좋은 합의도 도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는 노동계에서는 자신들을 정당한 파트너 대상으로 생각해 주지 않고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상대로서 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쌍방간에 신뢰가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뢰를 갖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형주 위원** 우리 노동정책이 큰 틀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노사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고용 선진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요, 노동 정책의 이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임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1989년 민주화 열풍



이후에 상당히 분배 문제가 강조되고 노사 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노사 문제는 상당히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이 사회 양극화 속에서 고생하는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이어서 고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행정의 전체 비중도 서서히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형주 위원** 특히 사회 양극화 중에 비정규직 법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예컨대 짧게,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숙고한 게 있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비정규직이 사실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가 평생직장은 이미 없어졌고 또 평생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됐고, 생애 전체를 봐서 한 3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특히 여성들은 자기의 직업패턴을 바꾸려면 많은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육아나 산후에, 특히 계약이 만료되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금 복직하고 싶어도 기업체에서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더 이상 일을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한마디로 직업이 단절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산전·후 또는 육아를 위해서 잠시 쉬는 동안에라도 다른 대체 여성 고용을 일시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의 신상진 위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로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특혜성 대가성 보상인사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이상수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노동행정 및 직무수행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따져 보고자 합니다.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많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알다시피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때 이상수 후보께서 기소된 액수가, 기업들로부터 얼마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절차를 위배해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고 돈을 받은 것……

전체 액수가, 흔히 언론에서는 32억 2000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26억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금호에서 6억 받으면서 영수증 끊어 주지 않은 것, 한화에서 10억 받으면서 영수증 끊어 주지 않은 것, SK에서 10억 받으면서……

○**신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수 후보님, 시간이 7분이라 짧으니까 묻는 질의에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에서는 얼마 받으셨지요, 그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10억을 받았는데……

○**신상진 위원** 받았다고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것이 개인 유용 혐의는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이상수 후보의 부친 선거 공보물을 보면 버젓이 개인 유용 혐의가 없다고 하면서 재판 확정 내용이라고,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을 공보물에까지 상세히 내셨어요.

이상수 후보께서 고위 공직자로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정치적 관행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잘못이나 그런 문제를 별로 느끼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보물에 그렇게 낸 것은 상대 후보들이 마치 제가 26억을 받아서 쓴 것처럼 애기했기 때문에 제가 26억이 걸린 것은 절차 위반 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또 집권당의 원내총무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하신 그런 입장에서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수 후보께서 속해서 일하셨던 열린우리당 쪽의 뜻이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렇지요? 국민과 약속을 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으로 내정되신 입장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개인 유용 혐의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앞으로 2007년에 있을 대선에서 또 그런 불법 정치자금을 수십억 받아도 결국 선거에 나올 수 있고 특혜를 받아서 장관도 될 수 있고 이런 보상성대가성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보여지는 마당에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거액 수수하는 그런 관행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이 나온 것 혹시 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대충 압니다.

○**신상진 위원** 경실련의 정무개혁위원장 권해수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외국에 가서 오늘 오후에 오신다는데……

거기서는 이렇습니다.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충무경찰서 초대가수’라는 2000년도 저서가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거기에서는 10·26 부천 선거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보은인사라는 말을 들으며 정부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재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히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노동부장관 내정 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보은적 측면을 스스로 인정을 하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출마하실 때는 정부의 보은성 인사라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출마했다,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내정되신 입장에서는 바로 몇 달 전에 한 이야기하고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나라의 한 부처의 총책임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믿음이 가겠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답변을 한번 할까요?

○**신상진 위원** 시간이……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상진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그 당시 재선거에 나왔을 때는 가능하면 제가 스스로 선거에서 당선되어 가지고 정치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후에 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기회를 주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보다가 노동행정을 맡는 것은 가능하겠다 해서 맡게 된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14대인가 그때 이 후보자는 아마 국회의원이 아니셨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14대 때요?

○**신상진 위원** 예, 14대 95년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때 종합법무법인 우성에 채용된 사실이 있으시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 당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 당시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법무법인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시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으로 해서 95년 9월 1일 채용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하고 관계없는 사실로 알고 있고요. 저는 15대 때쯤 가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법무법인이 만들어져서 참여했습니다. 14대 때는 혼자 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 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신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위원** 저는 인천 중·동구·옹진군 한광원 위원입니다.

오늘 환노위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제가 섬뜩섬뜩합니다. ‘조폭, 조폭’ 이런 얘기만 나와 가지고 환노위가 어떤 조폭과 관련된 게 아닌가 굉장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쟁터에서도 장군으로 임명되거나 이러면 적장이라도 일단 축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거나 이러는데요. 지금 이상수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내정되었으면, 예전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뭐를 하든 일단 축하를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어떤 정치의 멋이 없이 막바로 이렇게 하니깐 좀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을 대신해서 이상수 후보자에게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감사합니다.

○**한광원 위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공직자의 임무를 맡게 되셔서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선자금 사건에 따른 도덕성 문제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보은인사 논란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디다만, 그동안 후보자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인 만큼 비판받는 부분이 있더라도 겸허하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요. 후보자의 성향상 친노동계적인 정책 편중을 우려하는 견해

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노동부장관이 반기업, 친노동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공정한 중재자로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국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포럼’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과거 노동전문변호사를 할 때와 지금과는 노동계 현실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과거에 젊었을 때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가치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A 가치가 옳으면 B 가치는 틀리다 이렇게 선택을 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가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조화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말 균형 있게 노사를 두루 생각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한광원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빈곤 문제가 노동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훼손까지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상 IMF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화됐고 또 최근에 내수가 어렵고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더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창출의 효과가 높은 사회적 서비스 쪽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고 고용 안정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고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광원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 등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 따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대기업 노조가 단체협약상 어떻게 보면 높은 고용 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래서 문제다 이렇게 연두기자회견에서 신년연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시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 이런 데 몰두하고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사 간에 대화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경영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도 성과를 보기 위해서 임금인상 투쟁을 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최근의 여러 가지 국내 상황을 볼 때 대기업 노조도 이제 양보를 해서 비정규직을 위해서 임금이라든지 그 밖의 고용 조건에 관해서 많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광원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에서 많은 양보가 있어야……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많은 양보라기보다는 양보하는 자세를 갖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한광원 위원**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한광원 위원**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사실 선진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 임금의 60%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임금의 4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 임금을 현재와 같이 매년 물가와 전년도 임금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 전체 임금 평균의 50%까지 올리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제도화하자는 견해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충분히 제기는 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최저임금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근로자의 생계비라든지 노동생산성 또는 기업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그때의 노동 환경에 맞게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가 임금 총액의 정의 값에서 볼 때 그것 대비해서 한 42.6%가 되기 때문에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의 값이 13.4%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정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한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이렇게 마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 더 된 것 같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상수 내정자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얘기하셨습니까마는 대우조선 노조사건 관련된 대응이라든가 또 제가 속해 있던 동아 창동 공장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든가 또 정부로부터 상당한 탄압을 받을 때 전노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셨던 역할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아름다운 것은 세월이 지나도 언제 어느 곳에서도 빛이 바래지 않았을 때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저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장관이 두 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전임 권기홍 장관은 ‘노동부 직원들은 노동부 소속원이자 경제부처 직원이 아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대환 장관은 ‘노동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노동부이지 노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이 참 대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질의한다면 이상수 내정자께서는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 쪽으로 본인의 생각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전임 장관 두 분에 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평가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쪽으로 있을 것 같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가능하면 노사가 서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갖기를 바라고 때문에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단병호 위원** 처음부터 조금씩 실망스러워지고 합니다.

행정부처 내에는 사실 재경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실제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경제부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처 내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처는 오히려 노동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을 행정부처 내에서 주도적으로 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노동부가 노동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든지 근로조건, 직업안정, 보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고 펴야 되는데 단지 너무 지나치게 노동자 위주로 한 다든지 국가 전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부처임에는 분명합니다.

○**단병호 위원** 여전히 좀 지나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지금 국회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하루바삐 입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입법이 되고 빨리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생각이고 그만큼 쟁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0일 날이면 장관도 새로 들어서게 되고 민주노총 임원들도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장관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동안에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논의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노력을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를 합의해 냈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해야 될 책임자가 지금 이상수 내정자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의 대표들이 지금 새로 구성되는 민주노총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도 해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화시켜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신임 장관으로서의 역할이고 신임 장관뿐만 아니라 당연히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미 국회에 던져졌으니까 법은 국회에서 만들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정부에서 고심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지금도 심사할 때 저희 노동부에서 나가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협상이나 그 논의의 중심이 국회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안이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정부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유제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사유제한 문제와 기간제한에 대해서 의미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기간제한을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기간제한을 두는 것이 사유제한을 두는 것보다 비정규직 사용을 더 쉽게 하는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상 계약이 1년 기간으로 되어 있고 반복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마음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형편인데 하루아침에 사유제한을 가했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제에 만족하는 자세가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면 사유제한으로 이것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는 겁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사유제한을 가하는 것도 지금 일단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으려고 하는 고심이 숨어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로 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이상수 후보자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의 심각함 그리고 노동부장관으로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보면 양극화 문제의 주무장관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작년 연두 기자회견부터 얘기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참여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은 꼭 노동부와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재정부장관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건설, 대규모 유통 점포 신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대규모 유통 점포 신설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특히 중소 자영업자를 몰락시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여기를 좀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정부장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양극화 정책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앞으로 국무회의 때 이렇게 양극화를 부추기는 잘못된 정책을 재정부장관이나 아니면 관계장관들이 갖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드리느냐 하면……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양극화 해소는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일 앞으로 부처 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 온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지요.

○우원식 위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무장관으로서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이런 분들이 그동안 국무회의 안에서 경제부처의 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발언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원이 작년에 노동부 기금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업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기피하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

에 고용보험기금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 고용보험기금을 너무 많이 건넸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감사해서 노동부장관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노동부장관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신임 장관 내정자에게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놀란 것이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계정이 많이 쓰이지 않아서 9.9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안정과 직접훈련계정을 합쳐서 노동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면서 이 고용보험기금을 많이 써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에 임하고 해서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내면서 고용안정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실천해 가면서…… 고용보험기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써서 문제거든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이 감사결과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 참고자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참고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지금까지 노사정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노동부와 노동단체 그리고 경제단체간의 불신이 심각하게 노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임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번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 시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계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대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내각 개편이 그동안의 날선 입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좀더 성숙한 노력을 모색하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임 내정자에 대한 기대를 보내고 있고 그동안에 파행으로 이끌어져 왔던 노사정 관계를 회복

시키는 데 많은 기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기업과 노동자 이런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대타협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중진국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는 기로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후보자의 앞으로의 구상과 구체적인 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의 견해에 전부 찬성이구요.

우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노사 양쪽을 방문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서 노사정위원회를 어떤 위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입법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겠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앞으로 노사정위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면 중층구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앙 단위 노사정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 노사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지역 문제를 같이 협의하는 그런 차원의 일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구조도 좀 다양화해 가지고 서로 정말 애매한 문제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작업장 쉐신이라든지 일자리 만들기, 산업공동화 이런 문제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런 구조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상수 후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제종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의사진행발언이요?

**○제종길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말씀하세요.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님의 권한이고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공정한 룰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이 발언하는데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끄는 행위는 막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룰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몇 분간 켜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은 오해인데……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배일도 위원 잠깐만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요.

○위원장 이경재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끈 것이지 발언하는데 끈 것은 아닙니다.

○제종길 위원 제가 항의하는 것은, 위원장의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꺾단 말이에요. 그때 켜라고 그랬으면…… 행정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뭔가 진행상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두 번째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 허락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쪽에 있는 행정실에서 마이크를 켜다가 발언 기회를 안 얻었기 때문에 계속 발언하는 중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 어떤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도중에 마이크를 끈 것처럼 설명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지금 배일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원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때도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고 마이크를 켜라고 했는데 한동안 마이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할 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 그때 위원장님의 지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지 않고 했다고 마이크를 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도 마이크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배일도 위원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었을 때 마이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논의를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모두 출석해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성진 위원께서 첫 질의를 해 주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씩입니다.

○孔星鎭 委員 서울 강남을 출신 공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후보자께서 최근에 조지타운 대학에 유학을 갔다오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거기에서 선진화된 미국의 인사 청문회를 많이 보셨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에 최근에도 한 대법원 판사가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10년 전의 교통위반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그만큼 국민된 시각으로 모든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인사청문회이고 특히 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이래 인사검증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여러 번 제기됨에 따라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에게도 확대 실시되는 첫 번째 청문회의 대상으로서 이상수 후보자가 노동부장관에 내정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려를 금



치 못하고 특히 이것은 첫 번째 인사청문회 대상으로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국방이 필요하고 민생 차원의 경제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국민들 간의 신뢰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孔星鎭 委員 ‘신(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사회 신뢰’라는 책의 저자인 미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가 덕목이 사회적 신뢰’라고 얘기했고 ‘신뢰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위 왕따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한 책이 한 4년 전에 나왔는데, 보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읽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실 확인 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지난 2004년 11월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리고 사면복권된 것이 2005년 8월 15일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孔星鎭 委員 그런데 지금 지방변호사회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 기간 중에도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변호사 자격을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이고 저는 전혀 활동을 안 했습니다.

○孔星鎭 委員 활동을 한 것과는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변호사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2년 동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후속 조치를 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전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무법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孔星鎭 委員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해 보시면 그 기간 중에도 분명히 이상수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취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에 대한 정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989년 당시에 송파구 잠실에서 사시다가 중랑구 면목동으로 이사 오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선거를 위해서 이사 왔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때 자료를 보니까 아드님하고 두 분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따님하고 아주머니는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다른 데 어디던가요?

○孔星鎭 委員 면목동 359번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같은 면목동이던가요?

○孔星鎭 委員 같은 면목동인데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 당시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제가 먼저 면목 5동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연 기억이 안 나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孔星鎭 委員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별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하고 딸이 거주한 곳으로 신고한 곳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전혀 거주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전연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요.

○孔星鎭 委員 무슨 상가 건물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이따 추가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연 모르는 사실입니다.

○孔星鎭 委員 저희들이 질의했더니 담당자는 여기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신고를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이런 것이 분명히 소명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구조적으로 이상수 후보자께서 불법자금 수수를 하고 그 자금 수수한 차원에서 형을 받고 그리고 대통령의 보은 인사적 차원에서 특별사면되고 복권되

어 가지고 출마를 하고 낙선되고 다시 또 장관으로 내정된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것은 자칫하면 불법적인 관행이 정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탈하고 소박하다는 성격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상수 후보자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법 개념이 상당히 일반 상식과는 어긋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최근 부천 원미 재선거 때 이 자서전을 내셨는데 자서전을 제가 죽 읽어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자기는 구조적인 관행에서 희생자다’, ‘기계적 형평성 때문에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총대를 맨 것이다’ 이런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계속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마 한 번 어느 수필에 나온 것 같은데요.

○孔星鎭 委員 계속 나왔다는 것은 이 책에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TV 인터뷰라든가 모든 신문 인터뷰에 보면 내 잘못보다는 구조, 사회의 잘못이다 이런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이 많이 목도되는데,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사소한 절차적인 이유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국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고, 반성하는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孔星鎭 委員 사실은 기계적인 형평성이라면 반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오히려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특히 지난 부천 재선거에 나가기 직전에는 ‘국민적 심판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했습니다마는 그 심판은 사실 내려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보은인사라는 오해 때문에 내가 행정관료로 가는 것보다는 몇몇하게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孔星鎭 委員 그렇다면 이것이 보은인사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에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것이 조직폭력배나 범죄집단의 소위 오야봉 꼬봉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국민적 질타를 대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보은인사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저에 대한 배려를 했다 이런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경재 공성진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께서는 노동 문제에 대한 애정과 사 측에 대한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정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문제이지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의 최대의 현안과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진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서 양대 노총의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어제 우리당 당의장 후보인 정동영 후보와 김근태 후보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심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내정자께서는 양 노총의 입장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마 양 노총 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보호법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원내총무 할 때 제가 한 말인데 한비자에 보면 “처음에 얼굴을 조각할 때 눈은 작게 하고 코를 크게 조각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눈을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코를 작게 깎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눈을 크게 해 버리고 코를 작게 해 버리면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봐 가지고 조심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집행해 나가면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견해차가 본질적으로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입장 누구보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 문제의 가장 큰 첨단에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생각하면 이 보호법안은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법안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늦어도 이달 내로 통과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정자께서도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규가 굉장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회복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감소되어서 경제에 기여한 만큼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가 노사 문제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큼니다.

산업재해로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13조 6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노사분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경제적 손실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노사분규의 근로일수보다 75배에 달하는 이렇게 중요한 산업재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그간 제가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켜보았을 때 산재은폐 문제라든가 산재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처벌 문제라든가 이

러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정자께서는 그전에 원진레이온 문제라든가 산재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산재 은폐 문제를 포함한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재해율이 0.7%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에 230건의 재해가 생기고 사망자가 거의 7명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재해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 부처에서는 재해 다발 업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산재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 대해서도 산재사건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오전의 인사말씀에서도 들었는데 앞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극화 문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은 아까도 장관 내정자께서 얘기하셨던 사회적 약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중 장애인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이 174만 명입니다. 이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38%입니다. 2000년의 47%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적 고통은 굉장히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장애인 고용에서 모범을 보인 업체 업주에게 직접 편지까지 할 만큼 장애인 고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대책에 대해 내정자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인데 실제로 1.2%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면서 고용을 안 한 경우

에 의무금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압박을 가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 밖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인제 위원입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노동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노사관계의 선진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인적자원 개발의 토대 구축, 이런 것이 우리 노동부에 주어진 주요한 과제인데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하셔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반 성장과 양극화 해소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최고의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동반 성장,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면 그 속에 이미 성장중심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극화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양극화는 크게 보면 세계화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모든 나라가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경쟁산업이 많이 몰락하고 있고 또 많은 자영업도 생기고 또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내부 투자가 적어지고 비정규직이 많이 생겨서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내정자의 생각을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양극화가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정보화와 지식기반 경제입니다.

정보화와 지식기반 경제가 양극화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고요,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애

기하는데 세계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양극화를 촉진시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극화를 축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컨대 인력을 많이 송출하는 나라에서 보면 세계화가 그분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 일각에서 노무현 정권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심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비정규직은 누가 만드는 것 같습니까? 비정규직은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

○**이목희 위원** 제가 답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면 정치적 선동입니다. 비정규직은 시장이 만들지요.

다만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에 따라서 비정규직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차별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장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양극화 해소에는 대략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나는 자산의 양극화를 저지해야 됩니다. 부동산, 주식, 인적자본 이런 것의 양극화를 막아야 되는데 예컨대 부동산 대책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우리사주제 같은 것을 제대로 시행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한 법과 정책을 잘함으로써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면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06년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노사의 타협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타협,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사의 타협인데 서로 타협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각 뭘 양보해야 타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최근에 크게 느낀 것인데 우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대기업 노조나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유연성을 좀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중소기업 노조에서는 오히려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목희 위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기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없이 전진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래의 투쟁방식으로 전진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영계도 역시 잡다한 분류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역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조세 개혁, 이런 것을 사회적 타협 없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계는 무엇을 양보해야 되느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자제, 고용의 유연·안정성,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노동계가 노력한다, 사실 이것 못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비정규직을 위해서 배려한다, 투명경영을 좀더 잘 한다, 그리고 투자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무엇을 양보해야 되느냐? 노사의 공정한 중재자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많은 부처가 다 사용자 편이니까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모든 정부 기관은 노사문제가 있을 때 공정한 중재자여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부만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공정한 중재를 강조하는 것은, 많이 달라졌습니까마는, 지금의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사적으로 편향돼 있는 대목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실업을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대략 이런 내용이 사회적 타협의 내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합의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정말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로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3권이 분리된 우리나라의 국회는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봐서 사적인 관계도 있겠으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분류로 나누어서 우선 기본질의에서는 지나온 과거와 관련돼서 자질문제를 질의드리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는 현안과 관련된 업무중심의 능력 검증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부족함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무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회계책임자의 직책도 같은 것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04년도 1월 28일 구속되어서 복역을 했고, 2005년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가 2005년도 10월 2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낙방을 하자 지금 국가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해서 장관 내정자로 여기 청문회에 와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구체적 사실보다도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법률적 의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0조 내지 제266조를 보면 회계

책임자가 회계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내정자가 그때 당시에 회계책임자인데 국회의원이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 국회의원은 아마 당선무효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2004년도 3월하고 2005년도 8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대통령과 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무효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도 당선이 무효되는 법률적 내용으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대통령도 당선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

○배일도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와 또 관련된 질의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제 266조에 의하면 선거 관련 비용,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10년간 공직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교원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장관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딱히 그와 같은 제한규정에 적용은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현재 벌금을 받을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임용을 금지하고 있고 실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년간 금지하고 있는데 장관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해서 지금 임용을 요구해 왔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 공무원 임용규정과 비교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사면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정무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 임용규정에 제한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여러 의미에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판단을 본인이 내리거나 임용권자가 내려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궐선거로 원미감에 출마하시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 화장실·체육학교 건립, 교실 증·개축 등에 45억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받았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분을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가 저를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만약 실형을 받아 버리면 장관에 임명됐다 하더라도 그 장관직을 그만뒀아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런데 고소……

○배일도 위원 실형이 안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인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받도록 이 조항은 되어 있잖아요? 허위사실유포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와 관련해서 만약 실형을 받으신다면 장관직을 물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의 내용은 제가 거기에서 팸플릿을 만들어 내면서 정부로부터 45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썼고요, 현재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다음에 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일도 위원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렵사리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계속성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기에 이런 문제까지 같이 잘

처리됐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얘기드리고 싶은데, 저도 법률가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거 때 상대방이 무조건 고소한 게 다 문제가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자, 됐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경기도 시흥을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자장관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이번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 신상 문제라든가 등등의 논란들도 있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논란들도 있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대선자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우리 정치의 아픈 현실이었고 기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여야 모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 내정자께서는 상당 기간 고통의 대가를 치렀고 일단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자금 문제에서도 적어도 내정자께서는 개인 비리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인사와 코드인사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특히 보은인사 내지 코드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사를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랄까 좀 트집 잡기 같은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내정자께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장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생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가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조정식 위원**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런 문제라고 봅니다. 내정자가 어쨌든 노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리고 일국의 노동부장관으로서 앞으로 복잡하게 난마처럼 얽혀있는 노동행정과 변화하는 노동행정을 제대로 펼 수 있겠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식견 그리고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자질과 문제,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내정자의 노동행정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 내정자께서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과거에는 가치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조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조정식 위원**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정자께서 과거 변호사 시절 그리고 시민·재야활동 시절 그리고 약 한 5~6년간에 걸친 국회노동위원회 시절 등등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노사·노동관계에 대한 자신의 시각 변화를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조정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에는 저 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행정에 있어서 기본 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정책……

그런데 과거 한 10년 전에 비해서 노동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행정의 중심 또한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노사 문제나 인권 문제가 노동행정의 중심 축이었다면 이제 어쨌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고용정책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노동행정의 중심으로 점점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노사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동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때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이것은 노동부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사관계는 노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관계로 가야 되고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상생의 물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어느 쪽에서 깨뜨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합해 내는 조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를 기대하고 노동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최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교섭을 위해서 약간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노동행정에 있어서의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내정자께서 노동 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를 꼽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고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러면 내정자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이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크게 봐서는 본원적인 일자리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성장동력의 배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일을 찾아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체제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에서 정말 그 부분에 관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정식 위원** 그 대목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봤을 때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대해서는 선진화 로드맵까지 만들어 가면서 전임 장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

게 봤다고 보는데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재 전국에 죽 깔려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잘 활용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데 고용안정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원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들의 처우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가장 중요한 것이 직업상담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축하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정자께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노동부장관직을 맡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는데요. 전반기의 노동정책이 기획과 조정 업무에 있었다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요 정책들, 즉 비정규직이라든지 산재보험제도의 혁신이라든지 직업훈련 인프라의 혁신, 그리고 붕괴된 노사정 대화체제의 복원 이런 것들 어느 하나 아직 충분히 마무리되고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소견을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이번에 제가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청문회 준비도 할 겸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으로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집행을 잘해 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전임 장관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빨리 실천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제종길 위원** 바로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청문회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장관이 두 분인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성향이라든지 두 분의 철학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 로드맵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데 지금 내정자께서는 전임 장관이 하셨던 일을 충실히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임 장관의 생각과 또 전임 장관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정책을 내가 앞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에 충실할 것인지 한번……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크게 봐서 전임 장관께서는 노동행정의 축을 사실 노사 문제에서 고용 문제로 적절하게 옮겨놓았고 그밖에 공무원 노조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더더구나 법과 원칙에 의해서 노사 문제를 풀겠다고 하시면서 노동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신뢰를 높였다고도 생각하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는 전임 장관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해서 행하겠다고 단지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현장을 강조하고 노사 간의 협의를 중시하면서 더 많이 사람을 만나면서 일해 나가겠다 이런 약간의 입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제종길 위원** 여러 정책 가운데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은 아까 일자리 창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는 이번 기간 동안에 비정규직과 대화해 본 적이 있거나 또는 그분들의 생활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이번 기간 동안에는

없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한 한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분들의 대우를 높여서 노동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좁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현재 소속된 법인의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던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제가 법인에 속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3대 때 국회의원을 마치고 14대 때 제가 밖에서 활동할 때는 개인 변호사로서 활동했고 법무법인에 제가 가입하게 된 것은 아마 15대 때쯤 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은 안 하시지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도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렇다면 우성종합법무법인에 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종길 위원** 그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정규적이든 비정규적이든 그런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내정자의 아주 치열한 인식이 있어야 비정규직 정책이 바로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노동부 내부에도 많은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분들의 삶이나 처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우선 정부가 모범을 보이자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좁히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정자께서는 소속된 법인의 근로체계, 그리고 노동부 내의 근로

체계가 우선 출선수범되어야 내정자가 장관이 되 시더라도 그 정책이 더욱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참 좋은 지적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아마 잘 모르겠지만 공증을 하는 업무가 있는데 공증 업무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정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노조가 굉장히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공무원노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법 내의 노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술에 배부른 것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분들도 하나하나 자신들의 권익도 신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득을 통해 가능하면 설립신고도 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위원** 내정자와는 제가 13대 국회 때 처음 들어와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행정을 오래전에 맡으셨어야 했는데 이제 기회가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축하도 드리지만 국민적인 차원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내정자께서 직접 강력하게 노동부장관을 하겠다고 원하셨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원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선거에 나왔는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통지를 받았 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래서 대선자금 수사, 그것을 노 정권이 등장해 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선거자금 문제는 다 불문에 부치고 지나갔는데 그 정권에서는 정치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겠다, 뼈를 깎는 각오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대선자금 수사를 했고요. 내정자는 일정한 책임을 지고 형을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 정권에서 사면을 해 버리고 또 사면을 하자마자 국무위원에 임명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참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내정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저는 국민에게 크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소한 어떤 절차적인 잘못이라도 위배한 이상 제가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인간으로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도 정말 역사의 희생물이다, 저도 희생을 당했다. 다른 대선 때는 1조 이상의 돈을 썼는데 저는 사실 400억 정도의 돈을 써서 역대 이래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자부도 해 왔고 저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단 한푼도 제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한 일도 없고 제가 위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제가 6개월 동안 1.5평의 감방에서 갇은 고생을 다 했고 미국까지 가서 고독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국민께서 관용을 베푸다면 남은 인생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든 정열을 바치겠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제 위원** 내정자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법 사소한 것 위반해 가지고 100만 원 벌금 받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도 못 갖잖아요. 사면 복권도 그다음 선거 지나기 전까지는 안 해 왔잖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정도 받은 그런 과오보다도 내정자가 저지른 과오가 약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의 잘못이 결코 약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많은 반성과 고통을 당해 왔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준다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국가에 봉사하겠다 하는 그

런 심정입니다.

○이인제 위원 지금 국무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임명직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직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인제 위원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저는 들어 본 일이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내정자가 희망을 하셨는지, 그냥 임명권자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한 것인지를 묻은 겁니다.

그런데 대선자금 얼마에 대해서 유죄를 받으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다 해서 26억입니다. 우선 6억은……

○이인제 위원 좋습니다, 액수는 큰 차이 아닐 테니까. 26억을 내정자가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자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받아서 우리 자금계좌에 입금을 시켰는데 단지 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 2건이 있고요. 1건은 영수증 끊어 주면서도 회사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고 개인영수증을 끊어 줬다는 것 1건, 절차적인 이러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을 안 끊어 줬기 때문에 불법자금인데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으로서 내정자가 책임을 진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주는 사람이 그걸 내정자에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에게 준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물론이지요.

○이인제 위원 그걸 왜 후보자가 책임을 안 지고 내정자가 책임을 졌어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러니까 제가 제도상의 희생자라는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는 자기가 질 책임을 내정자가 졌기 때문에 보은으로 인사를 한 것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보은 인사다 뭐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으로 자금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권하에서 그것을 금방 사면

을 하고 최고 임명직인 국무위원에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이것은 내정자 개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치주의,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들어 본 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정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고 우리 정치문화에서 희생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1분만 할까요?

○위원장 이경재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드리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반성도 많이 하시고 제가 내정자의 고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열정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 아닙니까?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정자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심도 있는 청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보충질의 때 시간을 조금 더 드려서 8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복심 위원님, 8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과제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적인 대화 체계의 복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해 노동분야는 노사정 간 대화의 부재로 인해서 양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전부 탈퇴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ILO 아태총회가 무산돼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처하는 등 최악의 노정관계가 지속 돼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에의 복귀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도 내부적으로 노동위원회에의 복귀를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대화 체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협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한 설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노사정위원회의 혁신방안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저도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 하려다가 그것도 미루어서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어제 소위에서도 비정규법을 더 많이 심의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다각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만일에 임명이 되면 우선적으로 노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신뢰를 서로 갖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우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노사정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노사선진화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절차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그동안에 노동부를 상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역설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석면 같은 위해요인 취급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강화방안, 제가 국감 때 이것을 지적하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다음에 불과 한 두 달 후에 그때의 석면환자를 찾아 봤더니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강화방안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여섯 가지 석면 중에서 다 금지되어 있고 백석면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 쓰는 석면 같은 것은 바로 관계부처하고 의

논해서 없애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체 석면 사용을 2009년까지는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심 위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방안인데요.

노동부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산업안전보건선진화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까지 재해율 0.5%, 사망만인율 1 달성을 목표로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기준으로 재해율은 0.85%가 되었고 사망만인율은 2.70%를 기록해서 목적하고 달리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영역은 예방관리체계와 사후관리체계로 구성되어서 총 8개 부처, 28개의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원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일원화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다원화체제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장복심 위원님의 의사를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심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인데요.

OECD가 지난해 펴낸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근로자 퇴출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56.8세의 정년연령을 한 60세로 상향조정하고 2013년부터는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정년을 두는 것을 차별로 보고 있고요. 일본도 정년이 60세로 알고 있고 영국은 65세입니다.

우리도 점차 정년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공서열식 임금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성과급체제로 임금을 바꾸면서 점차 정년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정년이라는 것이 차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정년제

도를 없애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능력에 따라서 인간이 평가받아야 되지 나이에 따라서 평가받는 사회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장복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저생계비 문제인데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의 이상과 현실을 조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옛말에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그만큼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윤리적인 행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은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자의 좌우명이 화이불류(和而不流)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어떻게 그것을 아시는가요?

○장복심 위원 이 말은 화목하게 지내지만 함께 흐르지는 않는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습니다.

○장복심 위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실행하기 쉽지 않은 덕목입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노동계나 경영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장관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단지 한쪽으로 꼭 치우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무리 치우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좋은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심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장복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두언 위원님 순서입니다. 마는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먼저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의 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공성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대업 씨가 희대의 사기꾼으로서 병풍사건을 조작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김대업 씨가 상당히 병무비리의 전문가이고 또 대선승리의 공로자이다’ 이렇게 추켜 세운 바가 있던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김대업 씨에 대한 평가를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孔星鎭 委員 그래요? 제가 인터뷰 자료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한번 봐 주십시오.

○孔星鎭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노동부장관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처음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소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이 적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실망감도 주고 있고…… 그 차원에서 본 위원도 불법비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개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래서 특히 이런 노동조합원이나 혹은 사측의 도덕적 견결성이 특히 눈에 띄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침묵하게 이해가 대립할 때는 원칙에 입각한 소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노동부장관은 전문성이나 역량과 자질도 필요합니다마는 도덕성과 소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서전이나 혹은 기타 인터뷰에서 보게 되면 나는 120억 원밖에 모금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옥살이를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투의 토로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한나라당에 비해서 10분의 1 불법수수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한때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같은 코드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크게 봐서는 반성하

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로서 최소한의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 회생을 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단 한푼의 비리도 없고 또 내가 보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적인 위배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부친 원미갑에 출마한 것이라는 투로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26%밖에 되지 않는 저조한 참여율이었습니다마는 결국 거기에서도 1만여 표 가까운 차이로 상대후보에게 낙선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1만여 표가 아닙니다. 한 6000표 차이로 졌습니다.

○孔星鎭 委員 1만 표에 가깝다고 그랬지 내가 1만 표라고 안 그랬지요?

이곳은 한 번도 그때까지는 한나라당이 당선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후보를 낙선시킨 주민들의 뜻은 바로 정치적 사면은 아직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孔星鎭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는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차 작년 10월 26일 증명되었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께서 여론조사 수치를 들이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전문가나 일반 대중이나 마찬가지로 이상수 의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은 인사 차원의 내정을 받아들이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용퇴함으로써 국민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그런 보은의 의사는 없으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孔星鎭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이 승리를 통해서 입성하였을 때 돼지저금통을 활용한 선거자금으로 이를테면 소박하게 선거에 승리하였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

는데, 실질적으로 돼지저금통에서 얼마나 모금하셨어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한 50억 정도를 거두어서 정말 선거를 치렀다는 의미에서 국민성금을 50억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孔星鎭 委員 돼지저금통만을 통해서 얼마나……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50억입니다.

○孔星鎭 委員 7억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전체, 온라인 돼지저금통까지 해서……

○孔星鎭 委員 돼지저금통 하나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50억을 모읍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러니까 국민성금, 온라인이나 돼지저금통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전부 50억 원……

○孔星鎭 委員 그래서 돼지저금통에 의해서는 한 7억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온라인이고 그다음에 불법으로 한 120억여 원을 모금했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불법으로 120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 후원금으로 거둔 것이 120억이지요. 불법이 120억이 아닙니다. 거둔 돈을 다 불법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孔星鎭 委員 물론이지요. 불법은 아까 정확하게 20 몇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불법으로…… 제가 절차를 위배하고 거둔 것이 26억입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니까 국민성금과 국고보조금만을 통해서, 즉 돼지저금통을 비롯한 국민성금과 국고보조금만을 통해서 선거에 승리했다고 홍보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가당착이다, 조금 거짓이 섞여 있다 이런 차원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빚을 많이 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회계……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빚을 졌다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전체 선거를 치르고 한 40억을 갖다가 당에 헌납했습니다. 남아서요.

○孔星鎭 委員 아, 그래요? 돈이 남았습니까? 빚이 남아 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으로 분리해서 나가면서 그 빚을 민주당으로 이월시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돈을 많이 갚아 주

있고요. 나갈 때도 제가 국고금 분기 지원금도 한 80억 남겨놓고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빛이 남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민주당에서 항의하던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잘못된……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그 점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孔星鎭 委員** 저희들이 알기에 그 당시에 선거 빛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 빛의 당사자가 누구냐, 채무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민주당 잔류요원들하고 열린우리당의……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선거 빛이 아니고요, 그동안 당의 빛……

당의 빛을 남기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당의 빛은 남아 있었지만 선거 때 빛은 없었고요. 오히려 40억이 남아서 그것을 당 빛에 갚아준 바가 있습니다.

○**孔星鎭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실과 그 다음에 이상수 내정자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앞과 뒤가 다른 점을 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사청문회법 개정된 이후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입니다.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서 이상수 후보자가 개인적으로는 소박하고 소탈하고 그리고 또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관성 있는 소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지, 3선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장관으로서는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사의 경우에도 10년 20년 전의 작은 잘못도 국민들 앞에 부각을 시켜서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경제의 양극화가 아니라 정서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서의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하나의 인사이고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공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일관되게 대선자금에 비롯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장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물론 현 내정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 또 추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특권이고 어드밴티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나라당에서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일이다……

물론 본 내정자가 지난 대선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해야 될 정도, 반성해야 될 정도의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 정치권 모두의 반성과 연동 돼 있고요. 또 정도의 차이로 치면 한나라당이 이상수 내정자에 비해서 그 당시에 관계되었던 분이 심해도 수십 배는 더 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6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공성진 위원께서 그 결과가 국민의 여론적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론 일견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저희 당의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재보궐 10·26선거가 있었을 때는 솔직히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훌륭한 분이 나가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고 그나마 실제로 보면 이상수 당시 후보께서 상당히 많이, 현재의 당 지지도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10·26선거의 결과가 이상수 내정자가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없다라고 국민이 심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孔星鎭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경재 청문회는 각 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 양해하시고 자기 차례가 오시면 다시 반박하십시오.

○김형주 위원 정책질의를 좀 드리면요.

실제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유시민 내정자께서도 구조적인 측면,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된 측면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조적이고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 있어서 청년실업 대책, 정책은 매 국감 시기마다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았던 정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께서 청년실업 대책이나 현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좀 비판적으로 보시고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청년실업이 많이 생긴 원인이 최근의 경기의 어려움에도 있지만 눈높이 차이, 그러니까 고학력 대학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요의 불일치에서 오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고졸 중에서 80% 정도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고졸 출신들은 실업자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전체 청년실업 중에서 고졸 실업자들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고졸 실업자들이 많이 생긴 원인도 우리가 잘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의 율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을 하는 기관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 제가 좀 우려했던 측면인데요. 우리 정부의 당시 대선공약 중 노동 분야의 글월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노동부가 일관되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주장해 온 게 뭐냐 하면 미스매치 현상,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만 강조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

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더 성실하게 그야말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래서 저는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도 법률·금융 분야, 이렇게 고용의 질이 높은 그런 분야를 많이 개발해 가지고 직접 대학 출신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함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위원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다수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부분은 실제적으로 악덕 고용주에 의해서 계약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떼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초과 이상의 어떤, 과잉노동에 끌려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는 성희롱과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든가 노동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충실히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노인 일자리와 같은 측면은 강조되면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간과되는 연령차별에 있어서의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할인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데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근로조건이 위반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노조가 시작될 텐데요. 복수노조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혹은 대안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만일에 창구를 일원화하지 않고 교섭하게 되면 우선 교섭비용이 많



이 들고, 또 이중교섭도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노조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사 쌍방을 위해서라도 교섭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곧 입법예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 위원입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후보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전문성과,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람은 찾으시면 많지 않겠습니까?

○신상진 위원 그런데 하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죽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상수 후보자께서 노동 문제에 대한 능력과, 그런 자질과 이런 경험을 일단 떠나서 불법정치자금 수수역을 수수해서 구속까지 되시고,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면을 바로 받으시고, 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작년 10월 26일 부친 원미갑에 출마도 하시고, 또 거기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자 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달 후에 이렇게 고위공직인 국무위원으로 내정이 되어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노동행정을 이끌어 갈 국무위원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우리 이상수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륜을 좀더 기다리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이 부를 때, 또 인정할 때, 또 그럴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뜻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 노동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결함을 가지신 입장에서 이렇게 청문회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95년도 즉, 법무법인 우성에서…… 95년

9월입니다. 그때 채용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월평균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 후보자께서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 피보험자의 이름이 뭐지요?

○신상진 위원 피보험자 이름이 46년 12월 10일생 이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피보험자가?

○신상진 위원 예.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네요.

○신상진 위원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성종합법무법인 서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당시에 어떤 연유로…… 그 당시 아마 14대 국회 때 원내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실 때인데……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신상진 위원 어떻게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채용되신 분의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95년도에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 아시나요?

○신상진 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아마 굉장히 많이 냈을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냈을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이 서류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확인을 그 사이에 했는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마 착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신상진 위원 착오가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많은 세금을 냈고요.

제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2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전연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제가 다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것은 이 후보가 추후에라도 장

관으로 확정되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리고 부천에서 10월 26일 선거를 치르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 당시에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월 26일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사실이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가요?

○**신상진 위원** 선거 공보와 현수막에 부천북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 등 3건에 4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취지로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에 한 내용으로 임해규 상대 후보가 고발을 해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그런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한 번도 없습니다.

○**신상진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우리 보좌관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했더니 특정 학교에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수 후보께서 어느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것은 확정된 것이다,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확보됐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것도 하여튼 오늘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과에 우리 보좌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 학교에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아직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마 공무원들은 책임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미 부처 간에…… 뭘니까, 부처 간에라기보다도……

○**신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확인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재선거 중에 이것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공보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15억 확보, 확정, 이랬는데요.

작년에 이 공보물이 나올 시기—10월쯤 됐을 텐데—그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교부금으로 해서 처음에 주기로 했는데 아마 이 교부금이 부족해서 BTL 자금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3월까지의 확정지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 보고 싶은데,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장관을 하다가 만일에 그것이 죄가 되면 장관을 그만두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예 장관을 하지 말라, 이 취지이신가요?

○**신상진 위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것을 질의했는데요.

하나는 최고 공직자로서 그런 준법정신, 그리고 정직성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선관위에 고발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형의 판결이 된다면 중간에 장관직을 내놓고 중도 하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신상진 위원님, 제가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신 위원님께서도 성남에서 선거에 나왔을 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선거에 뛰었지 않습니까?

○**신상진 위원** 이상수 후보자님, 그것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것처럼 저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수 후보자님, 본 위원은 의약분업 사태 때 엉터리이고 5조 원의 예산이 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정부하고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것을 재판받아서 대법원에 가 있던 사건이고, 지금 그것은 대법 기각이 되고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으로 된 사건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터리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진 위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후보자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수 후보자님,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질의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질의를 상정하셔서 흥분해서 반박을 하는 식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제 질의가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후보자가 그렇게 반박을 합니까?

○**위원장 이경재** 그리고 조금 전에 신상진 위원님의 질의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수사 중인데 심의 중에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답변할까요?

○**위원장 이경재** 답변하세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그 공보물을 보면 확정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 쌍방이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고소된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검찰 수사에 저를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고소 사건을 가지고 당신이 만일에 앞으로 실형을 받으면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부터 장관직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아까 정두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들춰내 가지고 마치 제가 앞으로 큰 형을 받을 사람처럼 과장시키고 아예 장관직을 그만두라, 이런 얘기는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경재** 이상수 후보,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저……

솔직히……

○**신상진 위원** 저도 마이크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사소한 것이라도 다 질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하시면 되지, 지금 후보가 너무 지나치게 반박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주의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조정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나가는 도중에……

그리고 저는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신상진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후보께서 그렇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하면 후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인정받은 이상수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거꾸로 그러한 열도당토얌은 질의를 하고……

오만방자한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합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경고라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조금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십시오.

○**배일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장복심 위원** 그만합시다.

○**배일도 위원** 계속하실 분은 하시고요.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는 사실상 엄격한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 법률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자칫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질의한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반박식으로 진행됐고,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시됐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제종길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임해규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간 사항과 부천시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

○**제종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질의하실 때 하세요.

○**배일도 위원** 발언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청문회는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개인이 가치판단을 해서 다른 당이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란 말이예요」 하는 위원 있음)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배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발언 중단의 권한은 위원장님에게 있으니까 중간에서 한번 의견 제시하셨으면 말올……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위원장 이경재**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우원식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경재**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우원식 위원** 본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도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배일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권 얻어서 말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배일도 위원** 왜 지금 이런 구체적 사실 내용을 의사진행발언 속에 포함시켜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국회법 또는 청문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어기고 장관 내정자의 답변의 내용이나 답변의 형식이 법과 위반되기 때문에 이런 위반되는 상태 속에서는 지속적인 질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적시되었을 때 저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모독받는 위치에서 장관 내정자에게 적절한지 안한지를 청문한다는 것은 더 이상 진행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장관 내정자가 거기에 적절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가 없다면 저희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아까 신청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우원식 위원** 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로 지정된 장관 내정자가 국회, 국민 앞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명도 하고 그리고 좀 지나치게 질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다고 항변할 수 있고요.

국민 모두가 본인을 보호해 가는 데 있어서 항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변은 못 하게 하고 그리고 후보자가 느낄 때 지나치게 발언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항의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청문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다, 내정자께서 국민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는 저도 느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시작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정두언 위원님!

○**정두언 위원** 우리가 잠시 아까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상진 위원이 지난번 선거 때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된 내용을 죽 얘기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관께서 미리 지금 “신 위원께서는 이리이러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박이라기보다는, 우선 지금 청문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장관한테 될 여쭙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이것은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상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또 모르는데 과거에 신 위원의 선거법 소송 얘기를 꺼내면서, 이것은 거의……

○**신상진 위원** 선거법 아니에요.

○**정두언 위원** 선거법은 아니지요. 하여간 재판 소송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질의하는 위원한테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김형주 위원!

○**김형주 위원**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보자가, 그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상에서는 다 같이 보신 대로 내정자가 좀 과도하게 미리 답변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모든 야당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정도는,

누가 들어봐도 국민이 알 수 있는 지경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께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질의가 일관되게 그 부분만 짚어 왔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 데 대한 유추나 또 나름대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에게만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공평하게 야당의 공성진 위원님.

○**孔星鎭 委員**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얻은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야가, 죽 질의의 행태를 보게 되면 김형주 위원을 비롯한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주로 정책질의를 많이 하신다는 이런 미명하에 후보자의 그동안의 역정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혹은 경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하고, 또 저희 한나라당 위원님들이나 단병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야당 위원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여러 각도에서 이상수 후보자의 측면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사실 조화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촌평 내지 논평을 하는 것은 청문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적인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들 얘기하는 것에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논평이나 촌평을 한다는 것은 아주 모양이 사나운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다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굳이 사과할 정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모욕감을 느낀 것이라라고 대변 내지는 항변을 해 준다면 대표기관인 우리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뭐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 가지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입니다. 지금 3선 의원까지 경험하신 우리 이상수 의원께서 아마

너무나 지금 사과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차, 내가 좀 흥분했구나……’

그것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니까?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공성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상진 위원님 발언 도중에 내정자께서 좀 흥분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상진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당의 위원님들 말씀은 이석을 반복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또 그것이 약간 과하게 질의가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나라당 출신의 위원장님이시지만 한나라당 간사님의 말씀만 듣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시고 함께 가서서 의논해가지고 들어오셔서 배일도 위원, 즉 한나라당 간사께서 법의 위반, 절차의 위반, 굉장히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정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정자께서 충분히 공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절차나 법의 위반, 글썽 그렇게까지 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셨으면 비록 야당에 몸담고 계시지만 내정자가 좀 잘못했으니 내정자에게 주의를 주고 한번 입장을 얘기해 봐라 이런 정도였으면 잘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양쪽 당에서 이 문제는 논쟁을 그만하고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계속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위원장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배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국회의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권 분립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장,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는 요소요소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침해당한 대로 어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당이 이 후보의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의혹에 쌓여 있던 부분, 또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해서 그 위치를 가게 하는 것은 우리 환경노동위가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 지점이 된다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각자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도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사진행발언하고 중간에 정회를 얻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재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판단할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에 대해서 항변조로 얘기를 했다가 해서 대단히 모욕적인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의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해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위원님과 함께 한나라당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편파가 있다느니 그런 차원에서 중간에 의사 진행을 저는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제시해서 중간에 정회를 요청하거나 휴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를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해석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이런 상태로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장관 내정자가 답변이 제대로, 성실하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 표명을 듣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면 저희는 청문회를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요.

당의 입장으로 표명을 드리니까 의사 진행하시는 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지금 배일도 한나라당 간사께서 양당 간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회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경재 예, 정회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배일도 위원님께서 여야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질, 모든 것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회의를 방해한 것은 이 회의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분명히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내정자의 자질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검증하는 것,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관되게 내정자에 대해 그동안 법의 판결을 받고 사면을 받은 문제만 갖고 아침부터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은 없는 것인지 배일도 위원님한테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장관에 대한 앞으로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배일도 위원님이 판단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그것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인격모독…… 위원에게는 물론 있습니다, 헌법기관이라서 있다고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정자께서도 거기에 대한 인권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회를 해서 이런 사과를 받는 조건에 회의가 계속될 것인가 했으면 우리당 간사한테 또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파행을 할 거다 통보를 했으면 우리도 회의를 해서 장관께서 사과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 우리도 같이 의논할, 나는 그런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은 제 의사 진행의

적절한 절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사 진행의 문제는 바로 내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신상진 위원께서는 지난번 10·26 보궐선거 때, 재선거 때의 위법문제가 앞으로 장관직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 사실 유포인데요, 허위사실 유포는 바로 확보되지도 않은 것을 확보했다라고 상대방에서는 공표를 했고 그것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가공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질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수 후보의 그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야당 위원들께서 여러 번, 재차 했기 때문에 꼭 다시 해서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또 신상진 위원은 확보했다는 것이, 현장검증 결과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답변하면 그만인데, 제가 볼 때 그 질의를 인격모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래 청문회의 취지가 과거 위법한 것 또 인간적으로 치사한 것 여러 가지 질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인격모독인지 인권유린인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질의했는데 자기가 별것 아닌 것으로 질의할 내용까지 추단을 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위원의 질의에 답한 것은 청문회의 취지와 답변자의 태도로서는, 저도 국회에 오래 있어 봤지만 그것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제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미 주의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한나라당 배일도 위원, 간사가 당적 차원에서 이것은 주의로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정회 요청을 해서 정회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상수 후보자가 제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순서를 생각해서 과연 후보자로서 적절한 답변이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

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데 오히려 역공하는 식으로 해서 훈계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잘한 것인가 판단하셔서 사과하시든가 그냥 할 수 없다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의 형식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소중한 청문회가 정회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서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사과로 수용하시기로 하겠습니까?

○**배일도 위원** 아직 회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각자의, 이 부분 사과가 아까 정회까지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내용인지는 판단할 수 없겠으나 다만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든 지난 답변 과정에서 진행된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고요, 계속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광원 위원님, 중계시간을 넘겨서 속개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원 위원** 저도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양당 간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죽 지나면서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슨 대선청문회인지 또는 재선거청문회인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시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 개개인의 과거의 비리를 하나하나 캐내는 것에 전념하기보다는 그 후보자가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전향적인 사고로 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맞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수 장관후보자에게서 장시간 검증받으시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회의원 선거하시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장관 하시려고 이렇게

인사검증 받으시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광원 위원** 지금이 더 어렵지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까발려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장관이 되기가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이상수 장관후보자에게서 아까 잠깐 흥분해서 가지고 오버되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에게서 너무 흥분하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직에 임하시는데 그런 사소한 것에 흥분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사실 여기 나오신 장관후보자는 장관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이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상대로 해서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사청문회가 되려면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좀더 전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주력할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한광원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중에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2배나 높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3.3%인데 청년 실업률은 7.3%로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장관 후보자에게서도 수요가 불일치되었다, 또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것에서 이런 원인을 찾고 청년들이 너무 괜찮은 일자리만 선호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다른 쪽 방향을 보면 지금 사실 우리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의 수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광원 위원** 그래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노동시장과 연계된 교육제도의 개편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합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령기나 양성교육은 역시 또 한계가 있다, 평생교육체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광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의 학과를 보면 실제로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거의 필요치 않은 과가 아직도 있고 사실적으로 수요가 있는데도 교육시장에 없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대학에 음향학과가 없어 가지고 국내 음향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요를 조달을 못 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령인구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데 대해서도 후보자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러니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노동부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가장 손쉬운 고용의 창출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서 그것에 많이 집중해 나가면서 나아가서는 정부가 나중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 서비스나 직업훈련 인프라를 선진화시키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광원 위원** 또 하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난 1990년 의무고용제 도입 당시 설정된 2%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따른 부담금이 미달인원 1인당 월 50만 원에 그치고 있거든요. 또한 장애인고용범위가 확대되고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의무가 강화되

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장애인 채용확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용률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고용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고용의무 비율도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원 위원** 하여튼 장관이 되시면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늘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불법단체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당시에 장관 후보자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여기에 계셨는데요. 정부 3개 장관이 불법단체다 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오늘 성명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바빠 공무원 노조들이 정식으로 노조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합법한 노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한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8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허가제였죠? 신고를 하고 노동부로부터 설립필증을 받아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허가제였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자율성과 자주성을 지나치게 훼손시킬 수 있고 제약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는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완화시켰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 다 빼버리고 2년 이상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개정안을 낼 때 지금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이라든가 이상수 내정자도 같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했습니다.

그리고 전노협 초기 때 불법단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기억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런데 나중에는 노동부나 정부도 불법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는 노동부와 같이 ILO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신고제로 하기 전에요?

○**단병호 위원** 예. 기억하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민주노총이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금속연맹도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조합원의 자격 문제로 다 설립 신고가 안 되었고 그렇게 범외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불법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오늘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정부 3개 부처가 성명을 냈는데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으면 불법단체라고 했습니다. 불법노조, 불법단체이 규정이 맞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마 노동법상으로 봐서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요. 노동법을 떠나서 임의단체라고 한다면 또 할 수 있겠지요.

○**단병호 위원** 저는 이번에 정부 3개 부처의 발표를 보면서 이 법 해석이 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초기에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임의단체라고 했지 불법단체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불법노조·불법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특히 제가 더 놀란 것은 조금 전에 한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성명에 동의한다고 해서 가지고 저는 이상수 후보자께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개정안까지 내신 분이데 지금 불법단체·불법노조라고 하는 규정에 동의한다고 하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과거에 민주노총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인데요.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사실 적법한 노조가 아닌 이상 어떤 행동을 하면 공무원으로서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노총의 구성원들이 하는 행위의 수준과 지금 공무원으로서 하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활동하지 않는 한 법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임의단체라는 것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법에 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지금 수준에서 정말 서로가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대에 상당히 역행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행위가 불법일 때는 불법을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도 다 단속합니다.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불법단체·불법노조로 규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노동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불법은 아니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하여튼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뭐냐 하면 조합원 자격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6급까지 허용을 하라는 것이고 6급에 대해서 지휘감독에 있는 분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현행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내정자도 현재 법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아마 공무원노조에서는 너무 범위가 좁다고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체행동권도 인정하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크게 봐서 현재 노동 환경, 국가 전체적인 환경으로 봐서 지금 국민적인 정서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켜진다는 의미에서 현재 만들어진 공무원 노동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정말 청문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자꾸 실망스러워지는데요. 88년도 공무원 노조법을 제출할 때 이상수 내정자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옆의 이인제 의원님하고 전부 다 같이 해서 70명이 발의해 가지고 법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자격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자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급 이하로 제한되어서 법안이 88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그런 법안을 냈던 본인에 어떻게 인식은 훨씬 그 전보다 후퇴되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15년보다 민주주의 더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고는 더 후퇴되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크게 사고가 바뀌었다고 봐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노조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국가 공무원법의 적법노조가 아니면 모든 행동이 위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현재 아직까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불법단체다 하는 얘기도 일응 저는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단병호 위원** 세월이 참 어떻게 변화됐는지 실감이 가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수 내정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처음 의회에 들어오셔서 공무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의 그런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정말 고민하고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서 공무원노조가 신고필증을 받고 합법노조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입니다마는 이인제 위원님께 순서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이인제 위원** 고맙습니다.

정책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행정을 맡게 되면 어떤 과제를 가장 절박한 과제로 인식을 하고 계신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존경하는 이인제 위원님께서서는 노동부장관으로 봐서는 선배 장관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특히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제 위원** 그렇지요. 특히 청년실업, 이것이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면 물론 노동행정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정부 전체 특히 경제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실 생각인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청년실업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도 거의 일반실업률의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청년실업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로서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여서 기업이 많은 일을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기본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는 풀린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를 강조하셨는데 저는 우리 청년실업이 줄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직역의 확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 법무,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금융 중심의 서비스업을 확장해서 많은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인제 위원** 그러니까 특히 금융 분야, 영국이 전에 대처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시장개혁을 통해서 금융 분야에서만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났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인제 위원** 그런데 금융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정부 전체가 해야 됩니다.

우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

쭈어 보고 싶은데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의 연두연설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거두어야 된다. 또 정부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다. 앞으로 정부조직이 더 커져도 상관없다. 또 사회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일자리는 그렇게 큰 정부 또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시장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률의 거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에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적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제 위원** 그런데 시장을 키워서 큰 시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 부담을 줄여 가지고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흐르게 하고 또 정부도 가능하면 줄여 가지고 간섭과 규제를 없애야만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데 아까 시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정부 안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인사말을 보니까 4페이지에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의 틀로 국민통합 연석회의, 중앙 노사정위원회, 지역 또는 업종 노사정협의회, 기업 노사협의회 등 중층적 협의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지금 노사정위원회 하나만 우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외환 위기 이후에 국민의 정부

가 들어서면서 4대 부문 개혁을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인제 위원** 공공, 노사, 금융, 기업 그런데 노사 부문의 개혁을 위한 협의의 틀로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분야, 노사분야의 진정한 개혁이 잘 추진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노사관계도 합리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노사관계의 선진화 로드맵은 아직까지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못 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인제 위원**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5년간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대화의 틀 이것이 작동을 못 하지 않았어요? 8년 동안이나, 말하자면 새로운 노사분야의 개혁과제를 협의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또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것을 더 중층화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장관이 되면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을 테니까 생각을 다시 잘해 보세요.

지금 모든 변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노사관계, 노동시장에도 새로운 틀,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노사관계, 여러 가지 대화하고 서로 돕는 이런 대화는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필요한 개혁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해 나가야 된다, 또 이런 사회적 협의기구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용시장의 고용 현황을 보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하고도 아주 맞닿아 있는 문제인데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규직의 50%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문제, 따라서 비정규직의 보호 입법을 만드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부문 중에 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이 IMF 이후에 급증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종사하는 인원이 90만에서 200만 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 미국은 인구 440명당 음식점이 하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79명당 하나입니다. 과잉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것은 중국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성비를 보면 가장 심각하게 적은 부분이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은 보건의료, 복지, 환경, 교육 이런 쪽의 일자리인데 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0만~400만 개 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복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문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나 하면,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과잉되어 있는 인력을……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과잉되어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된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매우 소중하다, 그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고용이 되어지지만 이것 가지고 다 되어지지 못할 때는—우리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정부가

개입해서 잘못되어 있는 시장의 왜곡을 제대로 잡아 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늘려야 되는 것이다,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 200만~400만 개가 부족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잡는 것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고 시장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그 고용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이지요.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사회적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을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며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유형화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서비스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연계하거나 시장성을 인정하면서 약간의 이용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점차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본 위원도 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민간의 자발적인 역량을 사회적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0.4%입니다. OECD 국가 일반이 1.7%라면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실업 예산을 보면 OECD 국가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이것은 말로 되어지는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부문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계정 쪽이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고용보험기금 중에서 고용안정계정과 직업능력계정을 통합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있는 기금을 써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을 펴서 지금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장관후보자님의 말씀에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작년, 제작년에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와서 노동부 국정감사를 죽 하면서 살펴 보았는데 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통계가 아주 엉망입니다. 청년실업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작년에 청년실업대책특별법까지 만들어져서 사실은 청년실업 대책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노동부가 낸 1년간 청년실업 예산 버전이 네 가지입니다. 노동부가 주었다는 자료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고받으면 아시겠지만 통계가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십몇 개 되는 틀린 통계를 일일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숫자도 틀리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잘못된 통계까지 냈으므로 해서 현직 장관께서 사과까지 했는데 내부의 기강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합니다만 노동부도 과거사 문제를 짚어 봐야 되겠다, 이상수 후보자께서도 과거에 노동위원회에 게시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거사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힘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부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포함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이 노동정책을 세우는 기본인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부기강, 제가 그동안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

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태어나는 노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도 통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통계 작성절차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통계작성반과 통계전담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부분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반은 통계전담반과 의논 없이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반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통계의 기초를 더욱더 확실히 하고 통계매뉴얼도 가능하면 만들고 교육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노동부의 통계체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마무리만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부러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이고요. ‘근로시간 통계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현실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평가와 정책제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노동부가 아직 멀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 왔지만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후보자께서 잘 검토하시고 다음에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고 좀 새롭게 태어나는 노동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제가 오전 질의에서 이번 인사에 대한 언론의 평가를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이 중갓대인사, 조폭인사, 세탁인사, 보은인사…… 세탁인사까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7일에 부천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사면복권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사면복권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몰랐습니다.

○**정두언 위원**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사면이 되겠다는 예감은 했습니다.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보은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보은인사는 후보자 자신이 쓴 말입니다. 책에도 보은인사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내가 선거에 나간다는 말을 사용했는데 무엇에 대한 보은이라는 말인지 한번 제가 여쭙어 보고 싶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명확히 쓴다면 보은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의미인데 대통령한테 제가 은혜를 준 것은 없고 오히려 제가 고생하고, 사실 지난번 선거에도 못 나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상당히 안쓰러워하고 안됐다는 이런 입장에서의 배려적인 차원은 있겠다 하는 의미에서 배려적인 차원의 인사라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후보께서 보은인사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여쭙어 본 것이고요. 표를 몰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한테 보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한테는 세금폭탄, 경제불안, 편 가르기 이런 고통만 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보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얘기한 부동산투기 의혹 문제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한 청와대 인사검증매뉴얼을 보면 부동산투기 관련해서 비연고지에 목적 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부동산투기로 규정해서 승진이나 고위직 임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강원도 태백시에 임야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에 정부는 태백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폐광지역개발 특별법 제정과 대체산업육성자금 지원을 포함한 5개 지원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9월에 후보 배우자께서 이것을 매입합니다. 매입 신고가는 2785만 원입니다. 4만 5247평이고요. 1997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됩니다. 그런 다음에 97년도에 건교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기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서요.

그런데 매입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그 땅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이름이 들어있어요. 1억 3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년 전에 2785만 원 주고 산 땅을 1년 만에 1억 3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지역에 투기조사가 계속 나갑니다. 98년에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합니다. 아까 근저당권 설정한 사람한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의혹이 될만한 사실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먼저 여쭙어 보겠습니다. 이것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전혀 모르는데 혹시 동명이인이 아닌가요?

○정두언 위원 그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 여쭙어 보고 싶은데……

○정두언 위원 아니, 배우자……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안승이라고 제 아내는 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정두언 위원 아파트도 간단 말이에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선거를 치르면서 세 번 옮겼는데 평생 아파트를 세 번 산 것 외에는, 토지도 이번에 집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한 번도 땅을 산 적이 없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래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여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대해서 1년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이 땅 자체는 일단 투기의혹이 있는 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본인 땅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니까요. 개인 유용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깨끗이 해결이 된 것입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정두언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언론에 120억을 모았다, 백십몇억을 모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왔다갔다한

이유가 됩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여러 차례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세 번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데, 액수가 한 번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두 개의 회사, 바꾸어 얘기하면 현재 문제된 회사인데 금호하고 한화에서 영수증 받지 않고 준 돈에 대해서 밖으로 얘기해 주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당도 막바지에 지역에 약간의 비공개적인 자금을 보냈는데 당에 비자금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거자금을 쓰고 금액을 다운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받은 돈이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두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여쭙보고 싶은 것이,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가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상당히 우수한 정부라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두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 보는데요, 지금 정부는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을 차떼기로 공격해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실은 차떼기의 원조는 열린우리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입니다. 그때 국민의 정부 때 당시 실세였던 권모 씨가 받은 돈을 차로 실어날랐다고 해서 현장검증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시 한나라당이 차떼기라는 명예가 뒤집어 씌워졌는데요.

그리고 대선자금도 마찬가지로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같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법조계에 있으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들이 검찰 수사에 가서 여당에 준 돈을 밝히겠습니까, 야당에 준 돈을 밝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야당에 준 돈을 많이 밝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분의 1이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10분의 1도 넘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이고요.

거기다가 과거 정권에서는 권력 비리가 대충 정권 말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자 주변이 줄줄이 구

속됩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후원회장까지 구속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부를 도덕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두언 위원** 예.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정말 정치개혁을 위해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 인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개혁을 해서 도덕적인 사회 환경을 만든 데는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두언 위원** 중요한 사실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확인된 메모가 들어왔는데 아까 그 재산 부분은 재산신고에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어느 것인데요?

○**정두언 위원** 국회의원 당시에 재산신고 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정두언 위원** 재산신고 자료를 뽑아 가지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희들은 강원도 쪽에 땅을 산 일이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있다면 콘도를 저희들이 분양받을 때 전체 콘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등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콘도 몇 평 분양받은 것을 잘못 알고 하신 것 아닌가요? 콘도는 저희들이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정두언 위원** 아니지요. 4만몇천 평……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정말 없습니다.

○**정두언 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네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정말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중대한 문제겠는데요?

○**정두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시에 시작해서 3시간 연속으로 하셨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특히 대졸 출신들이 아마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좀 기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청년 실업이 많은 것은 물론 일자리가 부족해서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고학력자의 자발적 실업이 많아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여로 볼 때는 직접 급여가 있고 간접 급여가 있습니다. 간접 급여는 후생복지제도나 주택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에 전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청약 순위에 중소기업의 장기근속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난해 노동부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63년 법 제정 이후 단 두 차례만 발동되었을 정도로 그동안 신중하게 대처해 왔던 것을 내정자,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전부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93년까지 두 번이고 그 이후에 두 번이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김영주 위원**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날 처리되었기 때문에 거의 긴급발동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그동안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노사 자율해결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자체가 노정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제해 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독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노정 관계도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내정자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은 이번 항공사 두 회사를 포함해서 네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동한 것은 제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첫째로는 노사 간 타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 보였고, 두 번째는 항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세 번째로 수출업자나 관광업에서도 연말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경제 차원에서 긴급조정권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공익과 정의권의 어떤 비교계량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내정자께서도 또 그런 항공사의 파업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긴급조정권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노동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 있는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8년 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령사회 문제는 생산력의 고연령화 문제와 고령실업의 문제를 야기할 것인데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직연령을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김영주 위원** 본인은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각종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령자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현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에 대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프로그램이나 고령자의 고용 결정 등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고용안정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 점에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인재은행과 노인취업훈련센터 같은 민간취업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지원책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노인고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보낼 것이 없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민간훈련기관도 육성해서 상호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고용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령자의 취업문제는 우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환경도 바꾸어 주고 훈련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연봉제 임금체제를 바꾸어서 직무성과급제로 한다면 아마 기업에서도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고령자 고용문제에 관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오전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을 설명드리면서 양극화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50.4%에 달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7%에 달합니다.

결국 사회의 양극화에 놓여 있는 가장 어려운 분야가 비정규직 여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 빈곤가정 중에서 45.8%가 편모가정의 여성가장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 특히 노동부에서 편모가정 여성가장을 위해 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보험의 실질적 혜택 등 여러 가지 취업훈련과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그 집행을 빨리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국공립이나 민간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편모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편모가정도 마찬가지로 편모가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두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정두언 위원 오늘 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전에 의사진행상 후보자 발언이 문제가 돼서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제가 질의한 재산관련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명이인을 착각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제 실수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하셨는데요, 이게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 재산등록서류에 분명히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1건이 아니라 신상진 위원이 질의할 때 고용보험 관계 서류에도—회사에서 뽑은 서류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20만 원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위증을 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 간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일단 제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회의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후보자께서 아까 계속해서 땅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최근에 집 짓기 위해서 땅 산 것 외에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아직 후보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산 것이 세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업을 시작해서 송파에 아파트를 한 번

산 적이 있고요, 면목동으로 이사와서 두 차례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를 두 번 산 적이 있고 땅을 사 본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유일하게 집을 짓기 위해서 부천에 약간의 땅을 산 것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아내도 한 번도 땅을 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저희들이 땅을 사 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고 대답했는데 방금 제가 휴게시간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95년경에, 아마 그때는 국회의원 떨어지고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중랑구 삼봉동에 사는 한 천주교 교우가 있는데 자기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산림업을 했는데, 벌채업을 했는데 그때 돈을 주고 샀는데 등기를 이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라도 그 땅을 이전등기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오기에 제가 땅을 산 일이 확실히 있으면 등기를 이전해 올 수 있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려면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아무런 돈도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겨주면 약간의 사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기에 같은 교우이고 또 지역구 주민이고 해서 제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 준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정말로 제가 진실로 말하지만, 아까 나가서 기억을 하니깐 그 땅을 제가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승소했습니다. 해 가지고 땅을 찾게 됐지요.

찾으니까 저한테 사례를 하겠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고 하니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실 테니까 이것을 내가 나중에 팔아서 줄 테니까 가등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준다면 제가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파시면 그때 그 소송사례금을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한 번 한 일은 있지 않겠는가, 가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땅이 나중에 팔려서 가등기도 풀어주고 소송사례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방금 확인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두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휴식 시간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양해가 됩니까?

○정두언 위원 양해가 안 되지요.

○위원장 이경재 말씀하세요.

○정두언 위원 위원장님은 그게 양해가 됩니까?

○위원장 이경재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정두언 위원 불과 10분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콘도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등록 서류에 콘도가 있습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콘도는 있습니다. 콘도는 등기되어 있습니다.

○정두언 위원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배일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배일도 위원님!

○배일도 위원 기억을 못 했든 또 사실인 것을 고의적으로 했든 어쨌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 내는 국회 내의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 절차를 통해 확인해서 거기에 적절한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아까 그런 과정을 죽 얘기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는 중단하고요. 어쨌든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으니까 중단을 하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을 하고……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까요?

제가 재판 결과를……

○배일도 위원 장관님, 말씀 중일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이후에 장관이 되시더라도 꼭 답변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지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배일도 위원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청문회는 그냥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없으셔서……

○**배일도 위원** 국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이경재** 처리 절차가 대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종길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님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권 드렸습니다.

○**제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배일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지금 정두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얘기하고 사실은 일치되지만 약간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할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고요.

일단 청문회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확정해 나가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정두언 위원이 내신 그 부분과 지금 내정자가 발표하신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경우 그때는 따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이 보기에 지금 이 문제가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문을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절대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질의를 제기한 위원님에 대해서 실수한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로 답변을 했는데, 극구 부인하다가 그 뒤에 사실이 나오니까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대한 위증의 문제가 있고 또 특유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신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좀더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 문제에 대한, 이쪽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제종길 위원님!

○**제종길 위원** 지금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실 문제에 대한 쌍방 간에 다른 주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두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도 굉장히 중대한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정자께서 다른 주장을 해 주셨기 때

문에, 또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것은 한 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은 주변에 그것을 조사했던 보좌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청문회는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

○**정두언 위원** 제가 확인하자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거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들었지만 그것은 부인 정도가 아니라 부인을 넘어선 답변을 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답변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또 나중에 증거를 들이밀면 말을 바꾼다면 그런 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 진행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질의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무슨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두언 위원** 아침에 방송에도 나갔어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문서에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가 기억이 나니까 그렇다고 시인한 꼴인데, 시인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후보자 본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 그것을 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아까 이상수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가 땅을 한 번도 안 샀다가…… 공직자 재산명세서에 기록해서 보고할 때는 아마 본인이 보고도장을 찍었을 텐데, 하나도 땅이 없다가 땅을 포함해서…… 공직 재산을 보고할 때는 이게 중대한 사건인데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서 참고인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일 제1차 위원회에서 모두 5인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인의 참고인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직업상담원노동조합 박영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의 권해수 위원장이십니다.

(참고인 인사)

참고인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출석요구에서도 밝혔듯이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자질신망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참고인은 인사청문회법 제1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참고인 박영진** ……

○**참고인 권해수** ……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참고인의 진술을 경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

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위원장 이경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참고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신문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량시간 배정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에서 15분, 한나라당에서 15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7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에서 총량제로 적용을 합니다.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신상진 위원님!

○**신상진 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경실련의 정부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성대 권해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출장 가셨다 오늘 공항에 도착하셔서 바로 이쪽으로 오셨지요?

○**참고인 권해수** 예.

○**신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2006년도 1월 2일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상수 전 의원의 장관직 내정에 대해서 경실련의 입장발표를 제가 접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발표하시게 된 경실련 내부의 이유가 어떻습니까?

○**참고인 권해수** 저희가 1월 2일 개각 발표를 두고 여러 가지 내부 토론회를 상당히 거쳤습니다. 여러 분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고 여러 분들에 대해서 여론뿐만 아니라 여·야당 간에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좀 다르기는 했지만, 저희 경실련 내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실련 활동을 하는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 그분들도 개별적인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실, 이번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불법성, 특히 불법 정치자금 문제들이

명확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특별사면과 복권, 그다음에 재출마,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 이런 부분을 강조해 왔는데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느슨한 법률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입장 표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성명서에 보면 이상수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을 모독함과 동시에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야당의 선거자금 관련자들은 아직 정치행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불공평한 처사라는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여러 가지 관행 또 그동안 진행돼 온 것을 보면 우리 이상수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고,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실형을 받고 특별사면을 받고 재선거에 출마하고 또 국무위원으로 임명받는 과정들이 너무 굉장한 특혜성 인사라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실련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지요?

**○참고인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 적용을 할 때 개인의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면 공익적인 이익을 취했느냐에 대해 물론 형량을 정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유죄적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이 정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그 연속선상에서 어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만약 이번에 이상수 후보자의 장

관 임명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대선도 2007년도에 있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큰 선거를 놔두고 앞으로 예견되는 우리 정치사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래야 될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권해수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참고인 권해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경실련에서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회에 의해서 좀 제약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당 간에 일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앞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정치인들의 경우 고위직, 정부 인사에 임명되거나…… 정부 부처의 이런 인사원칙이 좀 바뀌거나 새롭게 제정돼서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성명서에도 나왔는데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권해수** 우리가 사실은 정치권이든 공공부문에서 개혁을 왜 주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봐서 우리가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개혁을 주장하는데 그 개혁의 취지를 자신의 주변 사람에서부터 훼손을 하면 그 개혁이 다른 모든 일반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느슨한 그런 법 적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 도덕성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특히 미국의 경우 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문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전문성에 비해 도덕성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훨씬 더 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끝으로 이상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실련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고인 권해수 이미 청와대에서도 월요일에 인사기준을 즉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정하고 있는 인사기준에도,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앞선 다른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내일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결국 청와대 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정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권해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아직 6분 30초가 남았는데 한나라당에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열린우리당 측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 두 분 참고인 오래 기다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진 위원장인가요?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참고인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형주 위원 현재 고용서비스 일선에서 직접 그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과의 많은 갈등과 처우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우선 새로운 내정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직업상담원들의 문제, 처우 그런 데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게 있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박영진 저희 직업상담원들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와 사무소, 능력개발팀에서 국민들에게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그리고 직업훈련 상담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전국에 약 17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계약직 신분, 비정규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정규직 쟁취에 대한 파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업과정에서 직업상담원 임금 예산을 인건비로 전환한다는 노사 간의 잠정합의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그

잠정합의가 3일 동안 정식 체결되지 못하고 5일에 끝날 파업이 8일까지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직업상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장 속에서 다 아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주 위원 그런 상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어차피 장관 인사청문회이니만큼 전 장관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새로운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직업상담원들의 입장이나 또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질에 대한 기대라든지 비판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 박영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직업상담원들은 신임 장관 내정자님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많은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장관 내정자님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2년 동안 노동부와 직업상담원의 관계는 충분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부에 있는 직원 1700명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과 전 장관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존재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극명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임 장관님과 우리 직업상담원노동조합 그리고 우리 직업상담원 전체 직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에 나름대로 노사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신임 장관님하고는 대화와 협력 속에서 모범적인 노동조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업상담원들이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과정 속에서 많이 소외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직업상담의 역할이 중요하고 고용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 증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원 인력이 아닌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 인원 충원에 신임 장관 내정자님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주 위원 현재 국가고용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 중에서 고용정보기구, 고용안정센터 그리고 공공직업훈련 기관, 이 세 기관이 하나의

통합된 기구, 가령 독일의 연방고용청 같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가고용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박영진 작년 4월 6일 정부에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국민보고대회를 했습니다. 노사정위에서 2004년도에 논의했던 고용서비스 선진화 합의문이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논의했던 그간의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앞으로 참여정부가 하반기 국정과제 중심으로 고용을 화두로 삼고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노력한다는 국민적인 약속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으로서 이런 정책의 방향이 더 올바르다 생각하고요. 이런 속에서 사회적 약자, 실직하신 분들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장관 내정자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재 앞에서 참고인에게만 질의하라고 했으니까 장관에게 질의할 것은 장관한테 별도로……

○김형주 위원 예,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직업상담원노조의 문제가 노동부 내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부디 장관께서, 실제적으로 직업상담원들이 공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금조차도 인건비 계정에서 나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참고인의 진술을 참조해서 형평성에 맞는 고용안정 선진화 방안에 대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권해수 참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개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상수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다른 후보보다 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잣대 외에 이왕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현재 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자질이나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해수 노동부장관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장관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이나 도덕성 측면들, 한 기관을 맡았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도 연장선에서 두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결함이 상당히 크면 전문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종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권해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영진……

○제종길 위원 박영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해수 교수님께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앞서 김형주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다시 한번 각도를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해수 교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권해수 교수님께서 노동전문가인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노동현안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겠다고 한번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권해수 저는 노동전문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다만 저희가 갈등 문제, 어쨌든 사회 제 분야에 갈등 문제가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취지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국 갈등 문제를 푸는 방법도 한 가지 측면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강조점들 중 어디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길게 봐서는 원칙론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과거에 죽 내려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 일관성들을 고려한다면 전문적인 측면들을 원칙에 토대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 권해수 경실련 위원장님께서 입장표명도 문서로 하셨고 또 여기에 와서도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재차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사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건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미 이상수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고통스럽게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복권이 된 사안이고…… 그런 데서 보면 일단 법률적으로 봤을 때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운동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들은 사람마다 의견들이 다양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이상수 내정자가 발표가 됐을 때 어쨌든 앞으로 노동행정이 노사관계가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잘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권해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 의견으로서 존중을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바로 또 한나라당에서 얘기를 하신 대로 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우리가 아닌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미 사면복권까지 다 된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짚막하게만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참고인 권해수** 잘 아시다시피 사면복권행위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면복권행위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 측에서 질의가 없으시면 비교섭단체 중에서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단병호 위원** 참고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7분씩이나 줘서 고맙고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따로 또 드립니다. 참고인에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나머지 시간은 이쪽 참고인……

○**정두언 위원** 지났는데……

○**배일도 위원** 아니, 저쪽 참고인……

○**위원장 이경재** 잠깐 기다리세요. 15분, 15분씩 양쪽에서 하도록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또 추가로 하실 분은 추가로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저의 시간을 아까 남겨 났는데요. 이것은 시간에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참고인이 두 분 나오셔서 부른 쪽의 참고인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쪽의 참고인을 먼저 신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6분을 안 썼거든요?

○**위원장 이경재** 하여튼 6분 하시고 또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진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직업상담원 노조의 구성실태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안 문제로서 지난번 노사 문제로 인해서 전 위원장이 지금 징계요구 처리 중이지요?

○참고인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참고인 박영진 전 2대 위원장 오현주 위원장 건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징계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7월에 노동조합 내부 사무실에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 퇴진에 대한 구호를 선전물로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지침에 의해서 행했던 노조의 활동이었고요. 노조사무실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징계위원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담당한 업무는 직업상담에 대한 업무이시고요.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시지요?

○참고인 박영진 저희는 1년 계약직에 자동 계약 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정기단협에서 근로계약의 변함 없음과 정년 57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특히나 이번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상담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런 노동의 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가요?

○참고인 박영진 우리나라에 노동부 직업상담원 제도가 도입된 지는 올해로 딱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분이 계약직, 그리고 일용잡급 예산 쪽에서 좀 불안했기 때문에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구인업체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운 조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처우가 개선되었지만 저희 직업상담원이 10년 동안 2800명이 입사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숫자는 1600여 명입니다. 1200명이 본인의 처우가 열악하면서 더이상 이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퇴사를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본인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본인의 처우가 열악한 속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전 노동부장관은 만나려고 그래도 잘 만나지도 못 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을 볼 수 있는 기대가 좀 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신입장관에게 그런 기대를 아까 보이셨지요?

○참고인 박영진 예.

○배일도 위원 그것은 노동부장관을 꼭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노동부가 실제로 산하기구의 청장을 사용자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지금까지 못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참고인 박영진 저희는 직업상담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 채용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직업상담원 업무 보수…… 업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한 계획, 직무에 대한 교육 계획을 노동부 본부가 수립하고 있고 특히나 직업상담원 임금에 대해서 매년 노동부장관 고시로서 확정 짓는 이런 속에서 실질적인 3년의 노동조합의 교섭 속에서도 실질적인 6개 지방노동청장과의 노사 협상은 좀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노동부 본부가 직접 참여해서 교섭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입노동부장관님도 직업상담원제도 자체를 인정하신다면 그 대표인 직업상담원 노동조합과 정상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까 오현주 전 위원장님 그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도 직업상담원 규정 제 26조하고 노동부 감사규정 제17조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를 지방청장으로 보고 경인지방청장한테 노동부가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징계를 요구한 것이지요?

○참고인 박영진 예, 맞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간 노동부가 적극적인 고용안정이라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과 실질적으로 자기 산하기구에 보였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영진 저는 노사관계 그리고 노정관계까지도 포함하더라도 대화와 그리고 협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서 노사나 노정관계가 더 일단계 이상 진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후보자에 대한 청문인데 일반 정책질의로 지금 흘러가는 감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끝내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인께서 바쁘신데도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수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다가 진실 여부 문제로 인해서 위증이나, 아니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여야 간사에게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질의를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처리를 논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만 먼저 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위원 저는 그냥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의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요, 또 의도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습시다. 곤혹스럽고요.

이상수 후보자의 장관 내정은 진짜 좀 무리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반성의 나날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청문회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질의한 재산,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를 질의하고 답변을 한번 들으면서 참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후보자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답변을 연거푸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 그것을 소송 수행과정에서 대가로 가등기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일단 중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왔습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진실 여부를 가린다기보다도요, 일단 저는 위증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위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가 반드시 검토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설령 모든 장관의 해명이 착오였든, 기억이 안 나서 그랬든 간에 여러 번 반복이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는 답변이 너무나 경솔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지금 노동행정을 맡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렇게 경솔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노동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장관님 답변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너무나 무리한 인사이고 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물의가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장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이 정부의 부담도 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저는 여러 가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은 아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다른 질의까지 하셨는데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휴회시간 중에 양측에서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상수 후보자께서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저의 아내로 가등기가 됐고 다시금 그것이 저의 아내로 본등기가 됐고 다시금 소송의뢰인인 남인기 씨한테 본등기가 넘어가서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습시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사건 의뢰인의 이름을 알게 돼서 연락을 했는데, 소재도 확인이 됐습시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수행했던 판결문도 지금 밖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제가 변호사로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변론해 가지고 땅을 찾아 준 것에 대해서 아마 밝혀질 것 같은데, 단 제가 정두언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일단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정말 그동안에 부동산을 1건도 거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그것은 저의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만일에, 이런 문제야 딱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오늘 확인했지만 제가 국회에 재산 신고할 때 이것을 신고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어제라도 알려졌다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늘 답변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로서는 오늘 처음 알아서 아까 오전에 갑작스럽게 정 위원님께서 투기 말씀하시기에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오전에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오후에 질의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두언 위원** 제가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쪽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후보자 사무실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아무개 일보에서도 전화가 왔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고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보자의 최종적인 해명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답변하는 태도나 그런 게 너무나 경솔하고 불성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거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은 장관의 해명이 납득은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사실관계는 어떤 겁니까?

**○정두언 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 ‘아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동명이인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확인 서류를 보여 주니까 그것은 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틀린 얘기가 있어요.

가등기로 얘기했는데 본등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계속 나름대로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환노위 입장에서 위증 여부를 나중에 판단해야 한다는 요청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두언 위원님이 가등기가 아니라고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정두언 위원** 지금 본인이 답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수정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이경재** 이 문제는 아직도 사실관계로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증인들 문제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을 텐데 최소한도 그때까지 사실 확인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보충질의가 8분인데, 지금 토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얘기와 보충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논란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위증 여부, 그러니까 방금 정두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위증이다, 그리고 여야간에 위증 여부를 결정해서 위증이라면 고발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의의 위증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로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했느냐에 대한 사실 규명 여부라고 보는데요.

내정자께서 진술하신 부분들이 두어 차례 반복된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답변이 다소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로 위증했다면, ‘고의’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겨서 거짓 증언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아까 실수 내지는 착오에 의한 답변을 했다고 하셨고 곧바로 답변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그것도 회의 시간 내에 바로 이어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하면서 답변 내용을 정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중치 못하게 답변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했는가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까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을 확인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고,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소송 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확인한다면 경위가 정확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요는 뭐냐 하면, 이 토지를 처음에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등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소송의뢰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투기 목적이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등기하면서 다시 이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경위들이 좀더 명료하게 밝혀지면 그것 가지고 판단하면 된

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정돈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아까 한나라당에서 얘기하신 대로 명백한 투기의 증거들이 드러난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어쨌든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면, 국무위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과연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도덕성과 개인적인 자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것은, 내정자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자질 검증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기되었는데 사안에 대한 각자의 판단과 주장은 자유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의 판단과 추측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목 대목에서 안타깝게도 뭔가 현 참여정부나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나 또 때로는 내정자에 대해 약간 인신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쪽으로 흐르는 측면도 다소나마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대선자금 문제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아까 내정자가 반성의 뜻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었던 것이 부천 보궐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 과정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특히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확인 과정이 있었고, 내정자가 분명하게 몇 차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답변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또다시 되묻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감정적으로 에스컬레이트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현재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예단하고 나중에 이게 문

제가 되면 그때는 장관직 물러나야 되는데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임 내정자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앞으로 훌륭히 잘 수행하면 그 이후에 아마 다시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장관인 동시에 정치인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한 본인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부분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부천 보궐선거 관계된 공약 문제에 대해서 현재 아직 기소된 사건도 아닌데 재차 되묻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을 오늘 청문회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보면서 그다음에 그때 정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오늘 저는 사실은 이상수 내정자께서 장관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증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를 해 왔고 또 그 가운데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이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하고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서로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조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입니다.

○이목희 위원 인사 말씀 이것 내정자가 쓰셨나요, 아니면 누가 쓴 것을 감수하셨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손수 썼습니다.

○이목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이목희 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성장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바꾸어 이야기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직권중재를 폐지하라고 예컨대 ILO에서 계속 건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폐지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이목희 위원** 예, 그런데 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메리칸 스탠더드를 들이대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우깁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정부로 말하면 경제 부처 쪽이나 혹은 재계나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메리칸 스탠더드인데 이것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우기면서, 사실 아메리칸 스탠더드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메리칸 스탠더드의 골격을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저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아메리칸 스탠더드와 같은 개념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판단력과 열정과 책임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만 대략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다음으로는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 조직 장악력 이런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심’ 하면, 제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꼭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것이 또 일각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으로 오해될까 봐 그런 것 입니다만, 이런 조건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내정자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우선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20년 했는데 정말 한때는 ‘큰 이상수’라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지난번에 대선 자금 때 재정 책임을 맡아 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엄격한 잣대로 저를 준엄하게 후리는 것을 보고 오늘 많은 것을 또 반성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앞으로 노사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일하겠지만 언제나 노사 어느 한쪽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는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일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예,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참여정부가 원래 정책의 기초를 노사자치, 노사자율로 정했고 그 원칙으로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 이렇게 정해서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내정자 앞에 두 명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의 장관을 평가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사양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두 장관이 각각 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그동안 준비를 해 오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노동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래서 두 장관이 잘한 점을 좀 말씀해 보시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처음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굳이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뜨거운 가슴으로 노동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장관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측면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장관님께서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특히 법과 원칙의 큰 틀을 세우시고 노동행정의 어떤 지속적인 예견 가능성, 신뢰를 심어 준 점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위원** 예, 저는 다른 부처 장관도 그러합니다만 특히 노동부장관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적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니까, 자유로우니까……

권기홍 장관은 관심과 애정은 있었으며 전략과 전술이 없는 장관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관심과 애정이 부족했고 전략과 전술도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애정과 관심만 가지면, 그것만 있으면 잘되는 것 같은데 전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애정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략·전술만 있으면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형클어지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관심과 애정을 가진 토대 위에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두 장관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빛은 많이 확대하시고 그림자는 최대한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과 애정의 토대 위에서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하는 그런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서 참고하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이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의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주로 지나간 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자질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 봤고요, 지금은 노동계에 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과 또 그 이전에 노동위원

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을 때 의정활동 속에서 주장했던 바와 현실과 괴리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코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일응 만들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보면 복수노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수노조의 핵심적 조항은 교섭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정부가 제출한, 지금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배타적 교섭제도 이렇게 좁혀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배일도 위원** 그런데 장관 내정자께서 지난 88년도에 법안을 내신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하고—그때 당시에는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노동쟁의조정법 이 두 개에 대해서, 또 다른 법도 많이 내셨습니까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당시에 모든 노조의 설립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취지의 제안설명과 법률안을 내신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노조 설립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고주의가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노조 설립이라는 게, 이제 노동3권 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교섭권은 당시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자율교섭의 원칙 이 부분을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배타적 교섭제도로 마련되어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대단히 상충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입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제가 배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창구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만든 법도 무조건 법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노사한테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그런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못 해낼 때 그다음에 과반수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한테, 그것도 없을 때는 전체 노조들한테 선거를 치러서 하는……

○**배일도 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옛날에 제가 한 얘기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배일도 위원** 아무튼 이 관계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다르다면 생각이 바뀌신 거고요, 같다고 한다면 현실과 괴리된 주장이 될 것이고 그런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좀 펼쳐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2004년도 12월 31일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2006년도 1월 28일,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지금부터 설립신고를 내서 등록만 하면 합법노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날짜가 꽤 지나갔어도 몇 개 소수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고는 큰 단체는 지금 가입을 않고 있단 말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두 가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공노총은 또 조합원에 가입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일축하면 지금 현재 이 공무원노조법은 직급으로 직무로 직책으로 직종으로 해서 이제 단결의 범위를 제한해 놨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둘러싸고 시행령이 나오면서 6급에도 여러 가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가입을 제한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진정한 단결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립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데 지난번 내정자께서 법률안을 내셨을 때는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교정 그리고 특수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주고 특수직만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행동권까지 다 줘야 된다 이런 법안을 내신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 기록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단결권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의 문제와 현실적인 노동조합법과는 굉장한 상충관계가 벌어질 텐데 이 부분도 만약에 다르게 적용한다면 생각을 바꾼 것이고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그대로 간다면 이 법과 상충이 벌어질 텐데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좀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께서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하는 게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노동조합법상으로 보서는 신고해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법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주 잘 지적하셨다고 보는데요, 어떤 노동조합이든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명칭을 쓸 때에는 신고를 받아서 합법적 노조만이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불법단체로 불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지요.

제93조에 과태료 조항을 보면, 벌칙조항을 보면 그런 노동조합일 때에는 과태료에 처해서 그런 것들을 없도록 해야 될 조치는 노동부가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대로 그냥 놓아 둔 채로 지금까지 갈등을 가져가고, 이렇게 두면서도 대화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 노동정책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일부 노동조합이 또 등록도 했고 하니까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은 합법 노조단체 아닙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배일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합법노조가 아닌 부분을 조합원으로 하거나 조직원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러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한 채로 현실적인 노사관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말이지 현실적 노동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내에 노동조합법상 비합법 단체가 가입을 신청해서 임의단체로서 들어가 있을 때, 크게 봐서는 민주노총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법으로 봐서는 괴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 가까운 시일에 문제를 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이상수 내정자께서는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2년 하시고 바로 변호사 개업하시면서 한국노동상담소를 개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로, 그 당시로 따지면 노동자가 가장 꾀박받는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노동상담소를 개설하시게 되셨습니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얘기를 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뒤늦게 고시를 봤을 때, 많은 동료들이 “당신 우리를 배반하고 혼자 잘살기 위해서 고시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다. 나는 고시에 합격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변호사로서 노동자를 위해서 돕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서울에 와서 노동상담소를 차리고 변호사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13대 국회에 진출해서 가지고 4년간 노동, 그 당시 환노위원회가 아니고 노

동위원회였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노동위원회였습니다.

○**제종길 위원** 노동위원회에 4년간 연임하셨고 또 15대 국회의원 때 2년간, 그래서 6년간 하셨는데, 내정자가 기억하시기에 그 6년 국회 의정 활동 동안 가령 어떠한 업적이나 노동 문제 개선에 기여했는지와, 또 왜 다른 여타 위원회가 많은데도 가장 인기 없는 노동위원회에 6년씩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13대 때에는 정말 제도권 내에서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울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에 주저 없이 노동위원회에 들어갔는데 후반기에는 사실 다른 위원회에 가서 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상수 의원님, 가 버리면 됩니까? 이상수 의원님은 남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2년을 더 했구요.

다시 15대 들어와서도, 일단은 환경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에 환경노동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해서 또 환노위를 선택했던 겁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그 6년간, 아까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안들을 주로 집중해서 연구하셨고, 또 어떤 노동정책들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우선 그때는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제도권 국회에서도 많이 도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5대 때 들어와서는 주로 노사 간의 합리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상당히 일을 했다라고 기억됩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질의를 좀해보겠습니다.

아까 내정자께서 현장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다가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장에 대한 감각을 가진 정책입안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은 느낀 것입니다.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실제로 상당히 감각적으로 정책을 마

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우원식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도 있고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 내정자께서는 특히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근로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중소기업이 지금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특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너무 단순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나아지고 근로 여건도 좋아진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실제로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일자리로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가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청년실업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가 산자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부의 인력수급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제가 현장을 강조했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를 확인할 때 혹시 노동부의 중립성에 훼손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약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분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 간에 의타심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래서 정말 가서 입장을 듣는다,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현장 방문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단순히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의 많은 법규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자도 크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정자, 균형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문제를 잘 푸는 것이 아마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정자께서 여러 면에 상당히 치밀하고 또 깨끗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신상진 위원이나 정두언 위원 발언에 따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좀 불성실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솔직히 얘기만 하면 될 문제를…… 물론 전문가의 확인에 의하면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용어가 도출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내정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청문회 준비 자세로 임한다면 노동행정을 장악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확고한 치밀함이 더 좀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노동행정의……

사실은 노동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판단력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두언 위원님께서 우리 팀에게 부동산 관계를 물어봤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당혹스러운데, 아마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좀 소홀하게 준비를 한 감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한테만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한편은 제가 ‘부동산’ 하면 전연 자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저의 자신감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 같아서 더욱 겸허하게 앞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길 위원 발언 중에서 “인기가 없는 환경노동위원회”라는 표현은……

○**제종길 위원** 아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복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다 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대 여당의 선거본부장을 배출한

그런 역사에 빛나는 환경노동위를 너무 자기비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종길 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 부분은 취하했으면 하는데……

○**제종길 위원** 예, 취하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2년 더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별로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상진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그렇게 세 분의 신청이 있습니다.

또 질의 도중에 더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공성진 위원……

○**위원장 이경재** 아, 공성진 위원……

○**신상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수 후보께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매뉴얼이라는 것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별로 못 들어 봤습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에 인사검증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투기, 준법성, 도덕성, 사회적 여론, 이렇게 네 가지에 많은 큰 비중을 두고 고위 공직자 인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부천 선거 때 고발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것은…… 조정식 위원께서도,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것을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우리 몇몇 위원이나 이상수 후보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이 분명히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고, 그것이 경미하든 아니든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질의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원이 했는데 또 중복해서 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인격모독이 되고, 또 저는 그것을 나름대로 저희 보좌관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더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우선 여당 위원, 또 어떤 분께서 인격모독적이네, 뭐 이렇게……

저는 도저히 그런 어떤 판단이…… 아무리 여

당이고, 또 같은 당에 계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검증매뉴얼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연고지에 목적 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로 규정해 가지고 승진이나 고위직 임명에서 제외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정두언 위원께서 지적했던 태백에 있는 땅 문제도 사실은 비연고지이고 또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거기에 자신이 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집 짓고, 부천에 땅 마련하셨다는 식의 용도가 아니고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비연고지에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집권당의 청와대 인사검증매뉴얼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문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이상수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사실 파악을 잘 못하셔서……

○**위원장 이경재** 의사가 기침하는 것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신상진 위원** 주사 한 방 맞아야 되겠네요.

○**장복심 위원** 약이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약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 가지고 이상수 후보자의 위증이나, 아니냐 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매뉴얼 자체에 틀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수 후보자의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몇 가지 기억이 불분명하신 것 또 본인이든…… 의도적이든, 모른다고 부정하신 것들을 결국 몇 시간 안 지나서 인정하시게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95년 9월 1일에 월 평균 20만 원이라고 해서 ‘우성종합법무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하고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했는데 아까 땅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상수 후보자께서 이것도 기억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더 확인해 보시고 두 번이나 부정하셨는데……

속기록에도 다 되어 있겠습니까마는 아까 부천 재선거에서 부천 북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등등 해서 20억 예산 확보라는 것이…… 아까 후보자께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셨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더 이상수 후보께서……

○위원장 이경재 기침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수 후보께서…… 사실은 검찰에서 다 밝혀지고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그렇게 확답을 하신 점도 과연 신중한 답변이신지 추후 제가 봐야 되겠고, 끝으로 본 위원은 오늘 이상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물론 노동 문제라든지 옛날에 인권변호사로 많이 활동하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소탈하다’ 여러 가지 좋은 평도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었고 적절하냐, 여기에 문제가 없느냐, 국민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경실련의 권해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경실련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은인사’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실형까지 받으신 분이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은인사로서 국무위원에 내정되고 임명되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도 속된 말로 영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위공직자로 진출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됩니다.

국민교육적으로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도 사실은 재고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본 위원은 이상수 노동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끝으로 내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단병호 위원 질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수 내정자가 결국은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보이는데 정말 신뢰받는 노동부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환 장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역대 노동부장관의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왔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이나 제도나 여전히 노동자들이 바라볼 때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거기에는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이후에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을 전공하셨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사용자에게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평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요. 부당노동행위나 이런 데 대해서도 좀 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87년, 88년보다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 전체로 보게 되면 일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법은 법전에만 존재할 뿐 실제 어떠한 법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 상당히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장시간, 저임금 속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5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어떻게 노동환경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이 사람들의 상태와 조건들이 87년 그 당시의 노동자들과 뭐가 달라져 있는지, 저는 87, 88년도 이상수 내정자가 정말 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가슴,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듯이 바로 이런 문제를 직시하고 노동부장관으로서 직위를 수행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에 내정이 되면서 노동자들은 많은 우려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보은 인사’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행정을 책임지고 다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소외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보은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요.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석은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세월이 가도 어떤 위치에 있는 빛을 발할 수 있을 때, 빛을 잃지 않았을 때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 보석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발부리에 밟히는 한낱 돌맹이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노동자들로부터 나름대로 기대도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과거 아름다운 기억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억들, 기대들이 올곧게 장관 임기 중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단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단병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시면서 노동부의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노동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게 위치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중립성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을 보면 경제부처에 중립성 이런 것은 없거든요. 노동부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부처와의 국무회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도 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있는 관료들, 노동부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이상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부를 유지해 가는 가장 큰 힘일 텐데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년 가까이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의 느낌은 정말 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그리고 노동자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이 있는가……

비정규직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꼬이는 이유가 노사정위원회의 중재안 정도를 노동부에서 제출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재안까지 나왔는데 노동부에서 훨씬 후퇴하는 안을 내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불신이 커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탁상행정, 그리고 과거의 구습에 물들어서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다른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노동부의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노동부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노동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노동부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서 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노동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개혁적인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상층은 많이 변해 있으나 실제 노동행정 일선에 가 있는 분들이 과거 구습에 물들어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통계 문제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기업, 재벌기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내정자를 저는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노동위 삼총사’ 이런 별칭까지 있듯이 노동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80년대의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후보자께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견해는 ‘노동 탄압의 사령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노동부에 공식적인 견해를 물어보니까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 ‘2005년의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와 노동조합 관련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노동사안 관련 개별 사건의 처리를 다루는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여한 것만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후보자께서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노동 탄압의 사령탑이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2005년의 노동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문제도 있고 관계기관대책회의도 있고 최근으로 오면 파업 유도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떤 구조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노동부가 진짜 노동자의 권익을 고민하고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연 것을 노동자들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노동위원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장관님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참여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정책이 관철될 수 없다, 장관들의 개혁적인 의지가 중간에 가다가 끊어진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개혁의지가 일선 행정 현장으로까지 침투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를 반성하는 계기를 노동부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성진 위원께서 이 질의서를 남겨 놓고 가서 제가 대신 질의합니다.

지금 주민등록표상을 죽 검토해 봤더니 89년도 1월경에는 내정자하고 아드님, 그다음에 또 내정자의 부인과 딸, 이렇게 서로 각각 나누어서 거주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성진 위원께서 여기 사진까지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의 지번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지번이더라고요, 멀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혹시 면목 몇 동으로 되어 있나요?동이 나와 있습니까?

○**배일도 위원** 면목동 193-1번지이네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혹시 동은 안 나와 있습니까?

○**배일도 위원** 동은…… 지금 이것이 제 자료가

아니라, 아마 본자료에는 있을 겁니다.

상가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옮긴 이유가 뭔지, 저도 서울로 올라와서 스물세 번씩이나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인데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그 문제는 제가 어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 쪽의 해명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저로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동인가를 알아보고, 실제로 그렇게 분리돼서 이전이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부동산에 관해서 재판을 해 가지고 이긴 사건이라던가, 제가 변호사가 돼 가지고 남인기 씨가 재판에서 이겼던 판결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한 해명서를 아울러서 내일 아침까지 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남한테 주고 또 자기가 좋아서 집행을 하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애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후의 노동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저는 기본요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고 한쪽으로 편중되면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국수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수주의는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민족주의는 민족을 오히려 파탄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됐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기도 했지만 저는 흠결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예수까지 저는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흠결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여기에 저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우리 한나라당이 하셨던 얘기를 또 국수주의나 아니면 자기편 감싸기식의 그런 뒤편이면 저는 내정자를 오히려 어둠의 구렁텅이로 더 내모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까 우리 한나라당이 했던 얘기들을 반면교사식으로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배일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는데 여야 간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예수도 흠결이 있다’라는 표현은……

○**배일도 위원**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위원장 이경재** 하여튼 생각이 있든, 이런 특정한 종교에 대해 흠결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소하셨으면 합니다. 여야 간사들이 취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후보자 이상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준엄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애정 어린 격려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다고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했고 답변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상진 위원님의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또 정두언 위원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 올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란 것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준엄하게, 엄격하게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또 정부의 관료를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선자금에 있어서 몇 가지 절차적인 사실을 위배했다고 해서 큰 문제 없겠지 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속되어서 정말 감옥에서 얼마나 국민

이 준엄하게 우리를 지켜보는가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또다시 경실련에서 나와서까지 제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질타할 때 정말 국민은 무섭고 두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저의 나머지 모든 경륜을 다 바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면도 극복하면서 노동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흠과 부족을 메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수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치면서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참고인의 성실한 진술, 기타 인사청문회 관련자들의 협조 속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다각적인 검증에 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력은 하셨지만 일부 사실에 대한 여러 차례의 답변의 반복과 위원 질의에 대한 위압적인 반격 자세 등을 지적받고 사과하는 등 불미스러운 모습도 보인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를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 말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가급적 충실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노동부장관 이상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산회)

---

○출석 위원(16인)

공 성 진	김 영 주	김 형 주	단 병 호
박 희 태	배 일 도	신 상 진	우 원 식
이 경 재	이 목 희	이 인 제	장 복 심
정 두 언	제 종 길	조 정 식	한 광 원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이 재 오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하    중    범

○출석 공직후보자

이 상 수

○출석 참고인

박영진(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 겸 노동부직업상  
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해수(한성대학교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